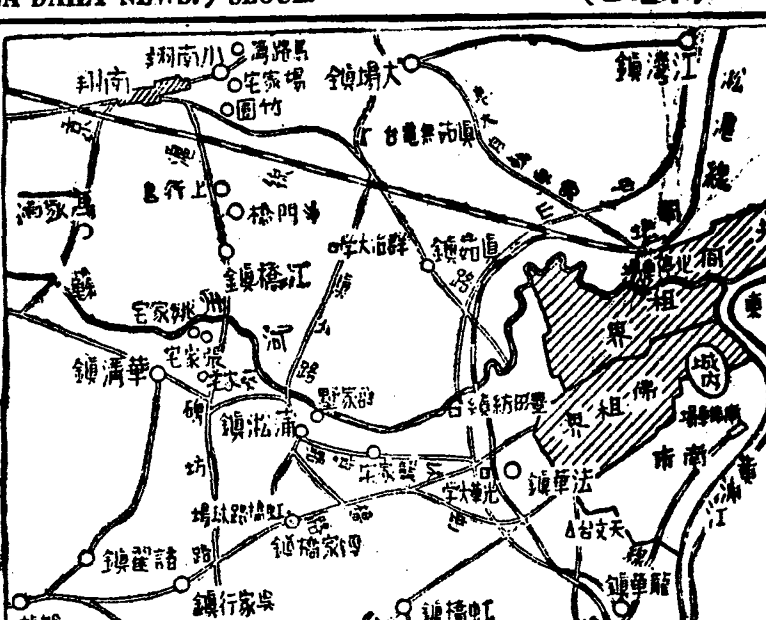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九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施家衛、西方部落과 江橋鎭을完全占領
海軍荒鷲各陣地爆擊



【上海九日發同盟】淺間、和知兩部隊는 八日夕刻 江橋鎭의 一角을 占據하고 敵과 對峙한대로 一夜를 밝히고 九日黎明을 期하야 殘敵을 攻擊하고 八時지나 完全히 이를 掃蕩하엿다 그런데 또 江橋鎭은 南翔으로부터 蘇州河를 連絡한 敵의 重要據點이다

【上海九日發同盟】江橋鎭의 堅壘에 依據하야 頑强히 抵抗하는 敵에 對하야 和知、淺間兩部隊는 八日午後 總攻擊을 開始하야 同五時半에 이르러 東北角의 一端을 占領하엿는데 同七時에 至하야 完全히 이를 占據하고 또 南翔으로 向하야 猛攻中이다

【屈家橋八日發同盟】脇坂、下枝兩部隊는 連繫하야 施家街及西方部落占據에 成功하고 繼續하야 南方으로 戰果를 擴張하고 잇다

【上海八日發同盟】第三艦隊報道班午後九時發表

一、十一月八日 海軍航空部隊는 全力을 다하야 陸軍部隊의 進擊에 協力하야 敵 第一線及上海附近으로부터 南方崑山方面에 向하야 移動中의 敵密集部隊에 對하야 果敢한 攻擊을 反覆實施하야 敵主力에 多大한 打擊을 與하엿다

二、또一部는 滬杭甬鐵道沿線方面上空을 快翔하야 陸軍部隊의 敏速한 追擊戰에 協力하야 全面的陣地攻擊에 協力하는 同時에 楓涇鎭、嘉善方面의 後方連絡終點을 爆擊하엿다

【上海八日發同盟】海軍航空隊 今村、千田主力兩部隊는 陸軍飛行隊及各方面의 陸軍第一線 地上部隊와 協力하야 上海附近으로부터 靑浦崑山方面으로 向하야 退却하는 敵의 密集部隊를 猛爆하야 徹底的打擊을 與하고 西部戰線에잇서서는 楓涇鎭 嘉善方向의 敵陣地及敵部隊를 爆擊하야 甚大한損害를與하깃다

反擊으로敵全滅

【屈家橋八日發同盟】七日[illegible] 部落을 占據한 櫻井部隊 右翼에 對하야 八日[illegible]百名의 敵이 逆襲을 試하여왓스나 櫻井部隊의 反擊에 遭遇하야 敵은 거이全滅되엿다 그리고 同部隊는 南方으로부터 增援을 어더[illegible]하야 頑敵을[illegible]하는中이다

上海敵軍總退却
重要各機關에放火

【上海九日發同盟至急報】總退却의 敵은 午前七時를期하야 警備司令部、兵營、市政府等 重要機關에 放火하야 南市西南部로부터 龍華에至하는 地域數個所에 放火되여 炎炎히 燃燒中이다

【上海九日發同盟】蘇州河南岸의 敵은 我猛攻擊에 견디지못하고 今早曉來 西方으로向하야 總退却을 開始하엿다

【洛陽橋八日發同盟】數日來의 陰雨가 개인 八日 我山內砲兵部隊는 午前九時부터 航空部隊의 爆擊과 呼應하야 敵前線의 中心地 江橋鎭에 對하야 猛烈한 砲擊을開始하엿는데 敵의 토치카는 一發마다 爆破하야 敵은 我猛擊에 견디지못하고 陣地를 放棄하고 退却을 開始하엿다

【上海九日發同盟】上海軍午前九時五十分發表

一、蘇州河南方의 敵은 我軍의 徹底的猛攻에 견디지못하고 今曉에至하야 全線에亘해 退却을 開始하엿다 我第一線은勇躍 이를 南方으로 急追中이다

二、我飛行隊는 早曉를 衝하고 西部地區에 飛翔하야 敗退하는 敵部隊를 猛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 與하얏는데 全軍의 士氣는 昇天의 槪가 잇다

三、昨八日午後七時頃 淺間、和知兩部隊는 江橋鎭을 占領하고 繼續하야 敵을 西方으로 壓迫中이다

政府系銀行 南京으로移轉

【上海八日發同盟】中央銀行을爲始하야 中國交通 農民의 政府系四銀行의 南京移轉問題는 英國側의 反對로 그後中止되여잇든바 最近戰局의 急進展에 依하야 日本軍의 上海包圍는 免치못하게 되엿스므로 國民政府는 政府系金融機關의 上海撤退를決意하고 數日前 此等銀行에 對하야 發券部를除한 銀行全體를 南京으로移轉하라고 命한것이 判明되고 이미 交通銀行은 南京支店을 本店으로하고 上海本店을支店으로 改組하기로決定한旨를發表하엿다 그結果 上海의財界는 消失한 存在로되여 經濟心臟部를 喪失한 國民政府의 財政困難은 益益그度를 加하야 國民政府의 財政政策은 一層著히 左翼化함을 免치못할것이라한다 發券部만을 上海에남길것은 政府銀行으로하야금 繼續하야 爲替오페레이슌을 行하게하야 財界의信用을 連繫하고저하는 通貨維持政策으로부터 온것이라 觀測되여 이미 支那全體의 經濟圈으로부터 遊離한 今日 上海爲替가 支那國力을表現하는것으로서는 너무나 無用化하여젓다 當地外國人側의 觀測에 依하면 今後 아마 中央銀行의 價値는 名目만으로되고 이외는 全然 無關係로 局地的 上海爲替市場의 現出을 示하게 될것이라고한다

豐田紡火災

【上海九日發同盟】退却에 際하야 敵은 上海西南部數個所에放火하야 豐田紡은 目下猛火에빠지엿다

敵頹勢挽回策으로 直系敎導師二萬을配備
指揮에桂師長任命

敵은 後方連絡線인 滬杭甬沿線이 遮斷되여 脅威를 밧게된結果 敵은 이頹勢를 挽回하려고 蔣介石의 直系敎導師約二萬을 師長 桂永淸으로 指揮케하야 最後의抵抗을試하고저 七日午後 蘇州方面으로 南下하엿다하며 또蔣介石自身도 戰線激勵次 某前線方面으로 赴하엿다傳한다

敵自動車爆擊

【上海八日發同盟】陸軍航空部隊는 오래간만에 晴明한空中을 衝하고 南方으로부터 地上部隊의猛擊에協力하야 八日에는 終日토록 果敢한爆擊을 行하엿는데 特히 ○○大尉가 指揮하는 ○○編隊는 西方江橋方面으로부터 崑山方面으로 敵自動車數百臺가 蜿蜒히 長蛇의 列을지어 移動하는것을 發見하고 爆彈의 비를 퍼부어 數十臺를 正確한 爆彈의 威力으로 粉碎하고 또後方에 移動하는 乘員과 彈藥을 完全히 潰滅시키고 또後方에 敵의 裝甲列車를 發見하고 이에 攻擊을加하엿다

南市避難地區 正式決定

【上海八日發同盟】中國赤十字協會國際委員會의 南市避難地區設定問題에 關하야 八日兪鴻鈞市長은 委員會에對하야 該案受諾을 通告하고 正式으로 調印을마첫다 따러서 九日正午부터 民國路와 羅濱路로 圍繞된地區가 正式으로 南市避難地區로 되게되엿다

各部隊城內로進入
激烈한市街戰展開
太原城內掃蕩戰發表

【太原九日發同盟】昨八日太原城의 北、東兩城壁을 突破하고 進入한 我軍의 一部는 壯烈한 市街戰을 展開하야 頑强히 抵抗하는敵과 對峙한대로 一夜를 밝히엿는데 昨夜來 和田工兵部隊는 北面의 小北門及東面의 小東門의 爆破에 成功하엿다 또 西面을 攻擊中이엿든 後藤、猪鹿倉、堤各部隊의 一部는 各各 城內에 進入하야 先入部隊와呼應하야 九日早曉來激烈한 掃蕩戰을 行하고잇다

【北京九日發同盟】軍司令部午前十時發表

一、後藤、猪鹿倉兩部隊는 午前九時三十分 和田工兵部隊가 爆破한 大北門으로부터 城內에 進入하엿다

二、今九日早朝敵은 頑强히 抵抗하고잇스나 萱島部隊는 城內의 東部地區를 大場、粟飯原兩部隊는 北部及中央道路에 沿한地區를、後藤、猪鹿倉部隊는 西部地區를 掃蕩中이다

[illegible] 潰走하고잇는데 炸彈과地雷火의 轟音으로 敵陣地는 震駭하고잇다

事變發生以來 上海工場被害二千

【上海九日發同盟】上海市社會局에서는 事變이 發生한以來各地에잇는 工場損害에 對하야 調査中이엿든바 八日上海市만의調査報告를 實業部에 提出하엿다 右合計에 依하면 被害工場數二千餘個 損害總額五億元인데 그中에는 閘北、江灣、吳淞、眞茹等工場으로 全部破壞된者도 包含되엿다

虹橋飛行場占領

【上海九日發同盟至急報】모뉴멘트路即牌坊路를 南進하는 我軍은 一擧로南下하야 虹橋路에達하야 今日午前九時 大山大尉가 永眠하는 虹橋飛行場을 完全히 占領하고 屋上노피 日章旗를날리엿다

南翔敵軍潰走

【上海九日發同盟至急報】我精銳諸部隊는 江橋鎭을突破하자 敗敵을急追하야 南翔方面으로 肉迫하고잇다 南翔方面의敵은 마침내 今朝來退却을 開始하야目下西北方으로向하야 潰走中이다

日伊通商協定 近日中調印完了

【東京電話同盟】日獨伊三國防共協定이成立됨에따러 三國間의友好關係는 急速的으로 敦厚하게되엿는데 이에依하야 日伊間에서 交涉中이엿든 兩國通商協定締結의 機運도 가속히 促進되여 大綱에 對하야는 兩者間에서 이미意見이 一致되여 右案文의字句를決定할 程度에까지되엿스므로 近近閣議를經하야 樞府御諮詢의 手續을經한後 兩者間에 調印을하고 十一月中에는 發表되게되엿다

時事解說 蘇聯의赤軍

◇

蘇聯의 [illegible]은 一九三六年末現在로 正規兵 百三十萬 民兵部隊 三十萬 特別軍隊 二十五萬으로 約百八十萬이다。그編成된 組織은 狙擊軍團司令部約二十數個 狙擊軍團 約九十數個 騎兵軍團司令部 約七個 騎兵師團 約三十數個 [illegible] 約四個 [illegible] 約五個 [illegible] 約十個 [illegible] 十數個다。

이 軍團의 配置狀況을 보면 [illegible] 八個軍管區를 가지는데 軍管區는 모스크바軍管區 우크라이나軍管區 레닌그라드軍管區 白로시아軍管區 北코카사스軍管區 中央아시아軍管區 西比利亞軍管區 特別赤旗極東軍의 九軍管區로되엿다。이것을 다시 西部와 東部로 分하야 보면 西部諸軍管區는 狙擊師團 七〇以上、騎兵師團 二五、獨立騎兵旅團一、東部[illegible] 騎兵師團 約五外에 [illegible] 二〇以上、[illegible]一이다。

◇

[illegible]은 [illegible] 모른다 [illegible] 五、[illegible] 九、航空母艦 [illegible] 一五、海防艦五、水雷[illegible] 一六、[illegible] 約十、砲艦 二、[illegible] 約二十、[illegible] 三〇、[illegible] 若干이잇스나 戰艦의排水量은 不過 二萬三千四百噸乃至二萬六千噸에 至하며、巡洋艦도 七千六百噸에 不過하는 小型이다。

◇

空軍은 一九三六年末 現在 五千台라하는데 [illegible] 一、七〇〇台 [illegible] 一、五〇〇台는 第一線에서 活動할수잇고 第二線에서 活動할수 잇는것으로 一千五百臺가 잇다 한다。그性能은 [illegible] 六〇〇所、中距離爆擊機는 近距離 (二五〇〇所)一、六〇〇所、遠距離 (五〇〇〇所까지)一、〇〇〇所、偵察機는 近距離 四五〇所이라한다 어떠케 海軍機로서 五百臺가 잇다는것을 附記하지 안흘수 업다。

上海西部一帶에서 一大追擊戰展開
爆擊、砲火로退兵制壓

【上海九日發同盟】虹橋、蘇州河南岸、浦東、南市方面으로부터退却하는敵은 太倉、崑山等에集結中으로 我飛行隊는 敵의退却에 對하야 猛烈한爆擊掃射를 加하고 砲兵部隊의追擊砲火로써 이를制壓하고잇다 步兵部隊의 全面的前進과相俟하야 上海西部地帶는 目下追擊戰의도가니로 化하엿다

【上海九日發同盟】岡本、長谷川、竹下의 各部隊는 今朝七時부터 蘇江北側地區로 向하야 攻擊을 開始하엿다 一方酒井、野添、藤山片山의 諸部隊는 漕涇鎭으로부터 攻擊을 開始하야 上海方面의 敵은 昨日來西方으로 南하야 退却中이다

蘇州河南岸及崑山靑浦를爆擊

【上海九日發同盟】蘇州河南岸과 崑山靑浦의 方面의 敵은 今早朝 我陸海空飛行隊混合總出動의 空爆에 依하야 制壓되여 全線

蘇、伊太利에抗議

【羅馬八日發同盟】日獨伊三國防共協定에 對한 蘇聯政府의 態度가 注目되든니 果然 羅馬駐箚蘇聯大使 모리스·스타인氏는 八日午後 伊太利外相 챠노伯을 訪問하고 伊太利의 防共協定參加에 對하야 抗議的意思表示를 行하엿다 이에 對하야 챠노外相은 三國協定은 何等特定國을 目標로한것이 아니라는旨를 言明하엿다

蘇聯大使는 챠노外相을 訪問하고 蘇聯政府는 一九三三年伊太利蘇聯兩國間에 締結된 友好不可侵條約에 違反되고 伊太利의 態度는 蘇聯에 對하야 非友誼的이라고 思考한다고 말하엿다 이에對하야 伊太利外相은 右蘇聯政府의 通告를 드러둔다는旨를 言明하엿다 伊太利外務省은 左와如한 簡單한 것을 發表하엿다 蘇聯大使는 챠노外相을 訪問

南市를完全包圍

【徐家滙九日同盟特派員發】午前十時五十分 滿讀塘크리크를 渡河한 [illegible]部隊는 破竹之勢로서 中山路를 南進하야 午後零時四十五分마침내 南市를完全히 包圍鎖하엿다

江橋占領經過

【洛陽橋에서九日同盟特派員發】午前午後에 亘한山○○砲、長屋○砲兩砲兵部隊及 空軍의 猛爆에 一時中止하자 和知、淺間兩部隊는 八日午後四時細見戰車隊와 緊密한 連携를 保持하며 江橋鎭의敵陣을 目標로 進擊을 開始하야 和知部隊는 午後五時半마침내 城壁을 올리며 敵陣을 突入하야 完全히 東一角을 占據하고 또淺間部隊는 東南方으로부터 蘇州河에 通하는 幅三十米의 크리크를 건너서 午後五時四十分市街에 突入하야 茲에敵의 最後의 一線으로 死守하고잇든江橋鎭도 마침내陷落되여 日章旗는 夕陽에 翩翻하나 부겨고잇다

浦東方面敵軍 通走路死守嚴命

【倪家街八日發同盟特派員】○○部隊本部에로의 情報에依하면○○部隊前面의 敵에 對하야 八日中央으로부터 第一線을 死守하라는 嚴命이 通達된 模樣이다 어는 浦東方面의 敵이 西方으로 逃走함을 容易케하기爲하야 ○○部隊와 ○○部隊의 南下를 어데까지던지 阻止하려는 意圖로 觀測된다 蘇州河岸으로부터 괴어스路에 至하는사이의 敵은 五線乃至六線의 堅固한陣地를 構築하야 我方의 進擊을 阻止하고잇다 또屈家橋前面의 敵陣地에는 八日朝來續續增援隊가 到着하야 我方의進擊阻止에 猛活動中인데 我○○部隊의 猛擊에 潰滅의一路를 밟을것은 免치못할것이라고觀測된다

九國會議議外에서 日支紛爭解決

【紐育八日發同盟】九國條約國會議는 對日回答에 對한日本政府의 復答을 기다리고잇는 狀態인데 紐育타임스紙 브류셀特派員이 八日報道한바에 依하면 同會議參加諸代表間에 日支紛爭은 會議外에서 解決될것이라는 意見이 漸次有力하게되엿다한다 同時에 同特派員의 報道要旨는 如左하다

브류셀會議參加諸國代表는 紛爭이 解決되리라는 意見을 모두 明白히 한듯이 想像된다 어미日本側의 和平條件이 허물려 [illegible]의 手中에까지 드러왓다는報道는 全然見解의 變化에依하야 發生한것이다 支那側은 이미重要問題에 對하야 合意하기 困難한 國際會議에 依하는것보다는 [illegible]을 選擇할것이라는것을 各國代表者는 알게되엿다 如斯히하야 會議는 얼마안잇다가 散會의 準備를하게될것이다 데비스米代表는 對日回答中에 「武力行使에 依하야 滿足한 結果를 어든 國家는업다」

[illegible]하야 [illegible]는아니다

一、[illegible] 一切의 [illegible] 小委員會에 [illegible] 可及的으로[illegible]히 [illegible]하기에 成功하엿다

一、그反面九國條約의 [illegible]하야 會議를 더 [illegible]한 目的에 [illegible]하려는 [illegible]

一、不干涉 第一線에서 [illegible] 責任을 지우려는 工作을 [illegible] 困에 도리가게하엿다 데비스代表는 [illegible] 條約效果를 [illegible]하엿스나 [illegible]

十五日頃 大本營設置
內閣制度改革은解消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에 對한 戰局을 進展시키어 [illegible]하고 [illegible]하야 大本營設置와 同時에 內閣制度를 改革하라는 議가 帝國不退[illegible]하고 [illegible] 軍令에 基한 大本營設置가 再次 有力하게 되여 陸海軍의 意向도 右 一致되엿다고 [illegible] 研究되고잇 最近各[illegible] 必要하다고 [illegible] 中外에 闡明하거나 大本營 [illegible] 同時에 內[illegible] 推察되어 目下設置의 時機와 樣式等에 對하야 兩者間에 硏究折衝을 行하고잇슴으로 諸般準備가 進捗되면 豫定과가티 十一月十五日頃을 期하야 日支事變當時의 戰時大本營條例를 準用하야 東京에 大本營이 設置되게될模樣이다

太原城完全占領

【北京九日發同盟至急報】軍司令部九日午後零時二十分發表
十一月九日午前八時三十分 太原城은 完全히 我軍手中에 歸하고 마침내 陷落되엿다

第一線部隊長에 南總督祝電

皇軍의 太原陷落의 制期的戰捷에 當하야 南總督은 今九日寺內北支最高指揮官、香月第一線各部隊長에게 左와如한祝電을 發하엿다

皇軍太原陷落의 快報에接하고 國民이 待望하든 山西의 要衝의 [illegible]이 [illegible]하는同時에 [illegible] 皇軍의武運을 [illegible]

英人損害賠償 英政府對策講究

【倫敦八日發同盟】이든英國外相은 八日午後 英國下院에서 一議員의 質問에 答하야 上海에잇는英國國民의 損害賠償要求問題에 對하야는 政府에서 適宜對策을 講究하고잇다는 旨를言明하엿다 卽日支戰鬪에 依하야 上海共同租界內에서 英國國民이 蒙한 損害賠償에 對하야는 政府는 前부터 上海駐在英國總領事에 對하야 被害調査를 訓令하야 總領事는 現場에서 可能한範圍內에서 調査를遂行하고잇다 이는勿論今後 必要에應하야 審定的 被害目錄을 作成하야 各各日支現地官憲에 通告하게할 것이다 詳細한目錄은 調査後 日支兩國政府에 提示

虹橋飛行場의占領 數時間後로追到

【屈家橋九日發同盟特派員】施家街의第一線을 突破한富士井、脇坂、下枝의各隊는 今曉來모뉴멘트路를中心으로 攻擊前進에옮겨 上海事變의導火線으로된 虹橋飛行場의占領은 後 數時間에切迫케되엿다

本社參觀

◇京城南大門公立普通學校生徒六十名 引率金振林氏外[illegible]

張國務總理發程
感謝人事次로渡東

【新京九日發同盟】治外法權撤廢의 感謝를 盟邦日本에 傳하기爲하야 滿洲國國務總理 張景惠氏는 九日午前七時四十五分飛行機로 新京을 出發하엿다

張滿洲國總理談 感謝訪日途上

滿洲國의 歷史에 一新紀元을 劃한 治外法權撤廢를 感謝키爲하야 新京發日滿連絡 京城經由로 感謝訪日途上에올른 滿洲國國務總理張景惠氏는 田村法制局參事官、平尾同理事官、宮外務局理事官、松本、王兩秘書官等을 隨伴하고 九日午前十時五十五分 京城飛行場에 着하야 南總督、大野政務總監、松澤外務部長、朴滿洲國名譽總領事 其他와 鮮滿一如의 人事도兼하야 交하며 休憩室로드러가 祝盃를 올리엿는데 特히 舊知의 總督과 總監과도 暫時 談笑한後 同十一時四十一分一行은 再次 同機에 搭乘하고 一路福岡經由 東京에向하엿다 同總理는 말하되

治外法權의 撤廢는 滿洲國全國民의 오래동안 憧憬하엿든 것으로 今日 이것이 撤廢케된것은 專혀 日本帝國의 援助協力에 依한것인데 滿洲國으로서는 皇帝陛下를 爲始하야 全國民이 歡喜하야 衷心으로 感謝하는바이다 余의 今回의 訪日은 이에對하야 淺分이라도 感謝의意를 表하기爲함에 不外하다 今回의 治外法權撤廢로 內鮮滿의 親善은 더욱 一新을加하야 東洋平和에 貢獻하는바도 만흘것이라고밋는다

治外法權撤廢 九日官報로公布

【東京電話同盟】去五日新京에서 署名調印을마친 滿洲國에잇서서의 治外法權撤廢와 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移讓에關한 條約同附屬書는 御裁可를經하야 九日官報로써 公布되엿다

八面鋒

◇『敎育의統一』이란大方針下에 臨時敎育審議會가 열리엿다。

◇統一이라는 二字를字義대로 解釋하는데는 아모도反對할사람이업겟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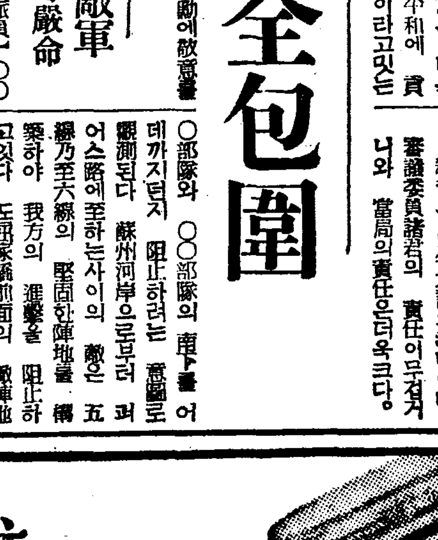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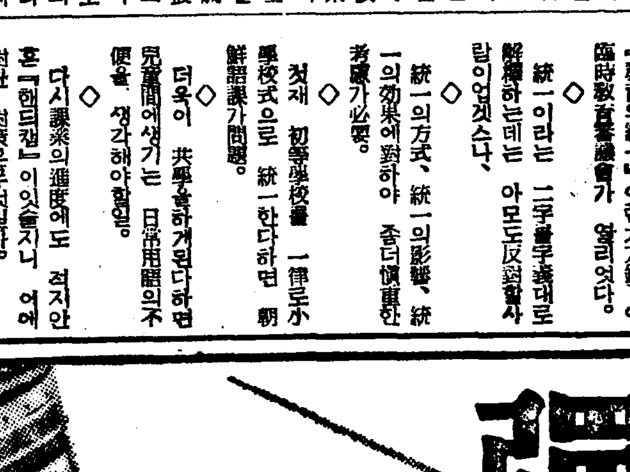
◇統一의方式、統一의影響、統一의效果에對하야 좀더愼重한 考慮가必要。

◇첫재 初等學校를 一律로小學校式으로 統一한다하면 朝鮮語課가問題。

◇더욱이 共學을하게된다하면 兒童間에생기는 日常用語의不便을 생각해야할일。

◇다시 課業의進度에도 적지안흔『핸듸캡』이 잇슬지니 어에 對한 對策은무엇일가。

◇敎育은 百年大計의하나이다、審議委員諸君의 責任이무겁거니와 當局의責任은더욱크다。

進んだ調味料
旭味
アヂ アサヒ
鮮內一手發賣元
室素肥料販賣株式會社
京城·釜山·平壤·群山·淸津
(旭一印)
壹圓 金二十錢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
食料品部發賣
打つた！巨彈

(淡靑罐入新調味料)

厨房의要求에
꼭合致된新調
味料『旭味』입
니다 잇지마
시고備置해주
십시요

藥學博士西谷宗雄先生
「新榮養讀本」無代進呈
二四〇錠 三·〇〇
一〇〇〇錠 六·〇〇
二二〇〇錠 一二·〇〇
△他に粉末あり
株式會社 北海水產工業研究所
發賣元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精肝ネオ
結核 貧血 胃腸
滋養强力ホルモン劑
鱈肝臟·牛胆汁
配合
特許發明

街頭에戰勝一色 日章旗의長蛇陣

日獨伊防共協定祝賀도兼 盛大한今日의旗行列

총독부구내에모힌기행렬대

태원함락(太原陷落)의 축하기행렬은 예정대로 일본 독일 이태리 세나라의 공산주의방비협정의 축하를겸하야 구일 오후한시부터 부내 다섯곳에서 약십삼만명의 학생생도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 청년단 방호단 재향군인회등단체원이 모히여저 예정『코ー스』에 따라 성대히거행하엿다 날 열기는 청명하엿스므로 오전열한시에 부내수개처에서 축의를 표하고 동서에 기행렬을 확실히거행한다는 군호를나는 방포를따라 시간전부터 전경성부내에는 전승축하의 기운을 도두엇다 정각을 한시간을 압두고 벌서부터 학생생도 애국부인회원들은 각기손에 일장기를 들고 경성운동장 총독부안 일출소학교 룡산역전 영등포등 다섯곳의 지정장소에모혀들기시작하야 오후한시에 일제히 만세를 삼창하고 륙렬종대(縱隊)로 대오(隊伍)를 지여 기를 흔들고 전승가(戰勝歌)를 노피 부르면서 시가로 행진을하야 거리에는 일장기의 바다를 이룰만큼 찬란한광경을 이루엇다 예정『코ー스』를 일회하고서 모두만세를 세번부르고 자유행동으로 해산하엿다

頹勢된土地家屋 賣買件數가激減

土地는件數와價格二割減 四月以來昨年同期와比較

구일에 발표한 경성부세무과의 조사를보면 금년사월부터팔월까지 다섯달동안에 부내에서 매매된토지는 오천일백오십오필에 그가격은 일천일백오십일만륙천구백사십팔원이며 또가옥은 삼천삼십팔건에 그가격은 사백구만사천구백이십륙원이엿는데 작년동기에비하야 토지는 건수로 일천구백륙십팔건(이할가량) 가격으로 삼백오십일만사천오백륙십일원(이것도이할가량)이 주럿스며 가옥은 건수로 이백오십칠건(칠분) 가격으로는 이십이만팔천팔백칠십이원(오분가량)이 주러서 토지가옥의세월이 점점쇠미해감을 증명하고잇다 그러고 팔월한달동안의 토지매매건수는 오백구십일건으로 작년팔월에비하야 칠백이십이건이나 적으며 가옥은 륙백륙건으로 작년팔월에비하야 일백구십일건이나 적어젓다 이와가티 토지와가옥의 매매가 주러젓기때문에 도세(道稅)와 부세(府稅)도모두 훨신 수러젓다

遞信從業員中心 軍事後援會結成

체신국에서는 시국극복에편한 국가총동원의 취지에 순응하기위하야 이번전조선체신(遞信)사업종업원이 한몸뭉치가되여 체신부내 군사후원회를 결성하야 국방기재헌납저금의 조합과 체신부내 직원으로써 이번사변에 출정군으로 소집되고 또는 종군한 사람의 격려, 위자 또는 그유가족의 위자보호원조등 군사후원에 노력하기로되엿는바 회장에는 산전(山田)체신국장이 되고 체신국각과장과 경성체신분장국장을 리사로하며 도각체신분장국장을 지부장으로하야 전용을경비하고 각지부간에도 긴밀한련락을취하야 군사후원에 만전을기하야 나아가기로되엿다

平北碧潼對岸에 二百匪賊襲來

小學校、民家에放火金品强奪 同胞農夫三名拉去

【新義州】 벽동대안(碧潼對岸) 관전현제사구로정자(寬甸縣第四區路亭子)에 동북항일비(東北抗日匪) 약륙십명이 삼일오전다섯시쯤 습래(襲來)하야 동촌자경단힐소(詰所)를 습격하야 장총(長銃)등을 강탈한후 조선인농부 세명을 잡아가지고 다라낫는데 이에응전한 만게(滿系)서원 세명이 중상을입엇다 도사일오후 열두시쯤 로이령(老二嶺) 청산호(靑山好)의 합류비 일백사십명이 한인하첨자촌(漢人河尖子村)을 습격하야 그곳소학교(小學校)외민가(民家)십여호에 방화를한후 금품을다수강탈하야 가지고 산중으로도주하얏다한다

安邊一心團事件 一名檢局送致

【咸興】 약두달전부터 검거에착수하야 약이십여명의 검거자를 낸 안변일심단(安邊一心團)사건은 그동안 소관안변경찰서에서 취조중에잇는바 지난오일 그취조가끗나고 주동자 선게대(宣桂大)[illegible]만 치안유지법위반의 죄명으로 원산검사국으로 송국하얏다 사건의내용은 주동자선게대는 지난소화륙년도 향리강릉보통학교(江陵普校)를졸업한후 재향중부터 그지도를밧고잇든 김남파(金南破)로부터 공산주의의 선전을밧고서 공산주의에 공명하게되야 금년사월부터 안변읍에와서 정의히(鄭義熙)등수명에게 공산주의를 선전고취하얏다고하는것이다

昌寧地方에도 때아닌暴雨

【昌寧】 경남창녕지방에는 지난삼십일에도 폭우가쏟내하고 또다시 지난사일에도 내리여서 일반농가에서는 때아닌호우로인하야 베어두엇든벼가 모다칠수업서 손해가 막대할뿐아니라 더욱이 근일에는 맥파종(麥播種)기인관게상 명년도 맥작은 우려중이라한다

忠北道서獻納 重機關銃十五挺 愛國機獻納後二次로

충청북도에서는 지난번에 애국기한대 고사용기관총 열다섯대분의 대금으로 삼만오백칠십원을 고사경기관총 두자루를 헌납하엿는데 다시 조선군사령부에 헌납하엿다한다

改悛程度에따라 處遇를累進緩和

受刑者累進處遇規則公布 明年一月부터實施

범죄수형자(犯罪受刑者)의 개준에따라 완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식히고저 행형의 목적이 전차고잇슴에 비추어 총독부법무국에서는 일즉부터 조선행형누진처우규측(朝鮮行刑累進處遇規則)을 지정중이든바 드디여 서안을엇게되여 금구일로 공포를보게되고 명년일월일일부터 실시를하게되엿다

이규측은 소화구년내지에서 시행된 행형누진처우규측의 실적에 비초여 종래 수형자의 작업교인격의 폐단을고치고 고사점(考査點)을 베푸러 이에따라 수형자의 개준을 촉진케하야 개생을 도모하는동시에 발분노력의 정도에 따라는 루진적으로 처우를 완화하야 점차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목적한것인바 이규측은 다음의각항목에 해당하는자를 제한 징역수형자에게 적용하기로 되엿다

一、집행할 형기일년미만자
二、만륙십오세이상으로 서서하는날을 감당못하는자
三、임부(姙婦)
四、불구폐질(不具廢疾)기타 심신의장해로 공동작업과 작업에 적당치못한자
五、위험사상을 가지고 그사상을 버리기에이르지못한자

布敎所管長妻가 敎徒들과多角情痴劇

布敎所門은敎徒들이閉鎖 警察의說敎를밧게된厥女

·포교소(布敎所) 관장(管長)의 처가 교도와 음탕한 생활을하야 드디여 포교소의문을닷고말게까지되엿다 부내욱정(旭町)일정목 일백이십이번지 길전호설[illegible]이라는여자는 대정삼년에 길전홍도(吉田弘道)와 관게를맺어가지고 진언종제호파(眞言宗醍醐派)경성포교소를 열게되여 당시하왕십리(下往十里)에 봉각사(鳳閣寺)를 건설하고 포교를 시작하야 소화칠년에는 교도침범을 헤아리게되여 매월 륙백여원의 수입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야가든중 그해가을 홍도가 일본전국을 편력하든중 객사하자 호설은 젊은교도여섯명을 조종하야가며 다각애의 어지러운 생활을 계속하고잇섯는데 얼마전 이사실이 교도들귀에드러가 포교소의문을다덧슬뿐만아니라 호설은 본정서 고등계에서 설교를밧는 신세가되고말엇다한다

中央理財社事件 三年懲役을言渡

생명보험회사의 외교원으로 잇스면서 그생명보험회사이측에 금융업소관인 중앙리재사(中央理財社)라는 간판을걸고 사용채용광고를 부내각신문에 게재한후 취직하려고 몰려드는 지원자를 보험에 들게한후 사원으로 채용한다하야 일을식히고 월급도 변변히주지아니하고 자기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바든데 상당한 보수를 바더서 사복을채웟다는 부내중학정(中學町)십칠번지 백양암(白陽岩)[illegible]에 관한 사기피고사건 언도공판은 구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김(金)검사관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은 피고에게 구형대로 징역삼년을 언도하엿다

軍人軍屬家族 地方稅를減免

總督府서方針決定

이번사변에 종군한 군인군속의 가족에대한 각세금의 감면에 따르는 지방세(地方稅)의 감면과 그납세연기등에 관하야는 총독부에서 미리부터 연구중이더바 이번 다음과가튼방침을 결정하고 구일 각도지사에게 통첩을띄여보냇다

一、지나사변에 종군한 군인군속에대하야 감면할 세금은 다음과갓다
(가) 국세는 지세(地稅)부가세(附加稅) 영업세부가세(營業稅附加稅) 호별세(戶別稅)이다
(나) 부읍면세(府邑面稅)는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호별세、특별영업세부가금이다
(다) 이상의 세금중에서 세부가세를빼 각세에대하야 륙개월이내의 납세연기를한다
二、학교조합에서는 그단체의실정에비추어 조합재정상 중대한지장이 업는한으로 이동접의주지에의하야 조합비의감면 또는 납세의연기를한다

慶州遊覽뻐스賃減下

신라구도(新羅舊都)경주의유람『뻐스』는 종래에 읍내부근 무렬왕릉(武烈王陵) 소금강산(小金剛山) 불국사(佛國寺)의『코스』에 운임은 일주하는때는 각『코스』운임이 이원이십전을 바덧는데 이번에 일원팔십오전으로 운임을 나리엿다한다

香 イナシン 一吹必殺

舍音을때려죽게한 小作人四年役

못자리까지냇다모못심고

못자리까지 부어노앗다가 사음이모를 못심게하야 손해를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말다툼을하다가 사음을 때려죽게하엿다는 소작인 경기도진위군고덕면동청리(振威郡古德面東淸里) 정순환(鄭順煥)(二ㅇ)에 관한 상해치사피고사건 언도공판은 팔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림(小林)재판장주심 장기(長崎)검사관여미테 열리엿다 피고는 가튼면좌교리(坐橋里) 박필보(朴弼輔)라는 사음이 관리하는 동청리에잇는 논두마지기를 그동리 황제관(黃濟寬)으로부터 전차(轉借)하야 소작하려고 못자리까지 부어노앗든바 모를심으려고 하는 오월초에 사음에게 소작을 줄수업스니 심지말라고 금지를당하야 물론으로나 로톤으로나 만흔손해를 입엇다 피고는 몹시분히여이엇든중 지난팔월삼십일에 서정리(西井里)시장에서 전기박필보를 우연히 만나게되야 손해를무러내라고 서로다투다가 피고는 분김에 박필보의 뺨을출때리어 길바닥에 너머트렷든바 이것이 원인으로 박필보는 그이튼날 오전네시에 뇌진탕되출혈로 죽어버렷다는것인데 재판장은 그에게 징역사년을 언도하엿다

西郊一帶區劃整理 府에實施를命令

阿峴町、大峴町、新村驛方面 面目一新은在邇

부내 아현정(阿峴町) 대현정(大峴町) 신촌역(新村驛)방면일대를 포함한구역오십만평의『대현토지구획정리』에 대하야 지나번에 총독부로부터 지주에대하야 구월삼십일까지에 시행인가의 신청기한을 정하엿든바 지주의 신청이 업스므로써 팔일에 경성부윤에 대하야 그사업을 시행하라는 명령이잇섯다 이지방은 현재 불량주택이 밀접하여잇고 가장 가로(街路)가 조치못한 곳이나 이사업이 진행됨에따라 서부발전에 놀랄만한 성과를 내게될것으로 기대된다한다 지대로서 만흔발전이 되게될것이라한다

出征軍人家族 醫料費를割引

철도국직영의 철도의원및철도진료소(診療所)에서는 이번지나사변에 출정한 군인의 유족에대하야 의약료(醫藥料)를 감하고또는 면제하기로되엿다 이은전을 입을사람은 경찰서장 정총대 재향군인분회장으로부터 출정군인 유족이라는 증명이잇는 사람은 진찰료를 면제하고 또 생계곤란으로 의료비의지출에 궁한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서장또는 부(府)읍(邑)면장의 증명서 도국원가족은 소속장의증명서로 약가 수술료 치료비는 반액으로하고 입원료는삼등 또는 격리(隔離)하는것에 한하야 반액으로하는등으로 구호하기에힘쓰기로되엿다

敦岩町區劃도 總督府서認可

近近工事를着手豫定

경성부로부터 일즉이 총독부에 인가를 신청중이든 동소문밧돈암리토지구획정리(敦岩土地區劃整理)의 실시계획은 구일에 드디어 인가되엿다 그래서 경성부에서는 근간에 환지예정지(換地豫定地)를 발표하야 공사에착수하기로되엿다 이사업은 동소문밧그로부터 신설정(新設町)에 이르는 일대지역 면적약칠십만평으로 공사가 완성되는때는 경성동북의 주택

要許可輸出品에 又復八種을添加

안티모니類와自動車部分品等

전시체제하에 잇는 비상시국에대처하기 위하야 총독부에서는 부령일백오십삼호로 수출입품등에 관한 림시조치법(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을 전번에 발표실시하야 수입품과 수출품을모두 금지 또는 제한하야오든바 팔일오후 총독부에서는 또다시 전번에 발표한법령중 병호(丙號)에 수출을금지키 위하야 허가를요한다는 조항에 다음의여덟가지를 추가하야 구일부터 시행하기로되엿다

▲豚毛 ▲安知母尼鑛及安知母尼쓰렛트 ▲貴金屬을 쓰거나又는 貴金屬을鍍金한 安知母尼製品 ▲別號에揭하지아니한 金屬製品中安知母尼製品 ▲自動車 ▲自動車部分品(原動力을 除함) 一、샤시 ▲內燃機關 一、自動車用 ▲安知母尼製의寢具

綜合競技의終幕戰 劍道大會臨迫

來十三日本社講堂서

朝鮮體育會主催 第十八回全朝鮮綜合競技大會의 最終戰인 劍道試合은 來十三日午後一時부터 太平通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擧行할터이라는바 參加希望者는 十二日正午까지 鐘路二丁目 朝鮮體育會事務所로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럭비對抗 廿七、八日頃에

京城과新義州

새로히 創立된 朝鮮럭비協會의 첫事業으로 열리는 京城과 新義州의 兩都市럭비對抗戰은 來二十七、八日頃에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豫定이라는바 兩都市의 名選手들로 組織된 各代表들은 벌서부터 猛練習을開始하야 當日의 熱戰을 豫期하고잇다한다

朝鮮武道舘記念式 十一日同舘서擧行

市內苑西町에잇는 朝鮮武道舘創立第十七週年記念式은 來十一日午後七時부터 同舘內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는데 同舘關係者는勿論 一般人士의 多數參席을바란다고한다

平壤中等蹴球勝利 對鎭南浦日鎭戰

【鎭南浦】 平壤各中等學校生徒選拔蹴球團一行은 지난七日 日鐵製鍊所運動場에서 日鐵蹴球團과 對抗試合을 金永燦氏主審下에 午後三時 開戰되여 前半戰에二對零 後半戰에一對二로 結局平壤軍이 得勝하엿다 兩軍의氣勢는 實로 莫上莫下하여 後半戰에드러서는 最後一刻까지 相當한激戰이 잇섯다

咸興럭비戰

咸興럭비俱樂部主催의 第三回咸興對興南戰은 七日午後二時부터 興公設運動場에서開幕되엿는데 兩軍의 實力伯仲하야 最初부터大接戰을 演하야 滿場의 가슴을 조이든바 結局六對六의 同點으로 끗치첫다

咸興六([illegible])六興南

土幕에서出火 三母子燒死

咸州郡德山面에서

【咸興支局電話】 지난칠일오후여섯시쯤에 함주군 덕산면 회양리(咸州郡德山面會陽里) 김순광(金淳廣)의 처되는 공씨(孔氏)가 거처하는 토막에서 불이이러나 토막을 전소한동시에 토막안에잇든 공씨와 장남김재운(金載運)과 삼녀김어인순(金於仁順)세귀숨이 무참하게도 불에타죽엇는데 전기공씨는 전신불수병에걸려 얼마전부터 료양을하고저 자기집으로부터 떠러진곳에 토막을짓고 거접을해오든중 불이낫스나 몸이병신으로 어찌하지도못하고 그대로 타죽은것이라하며 원인은 문턱에든 화로가 어떠지면서 불이옴겨부튼것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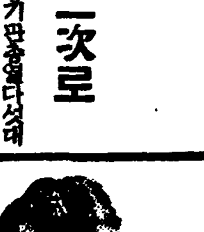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紀州沖바다 房總沖바다에 잇서서 한목으로 東進하고잇다 本邦及朝鮮南海岸은 降雨나 北支那의高氣壓은 滿洲를거처 北海道方面으로 進行하고 잇슴으로 北日本及滿洲、朝鮮의 中部以北은 好天氣다 明日도繼續하야 好天氣일것이다

豫報 今夜는개이고 明日도 개일것이다

昨日最高 一三度七
同日最低 四度七
今朝最低 四度七
今日正午 一二度九

小心憂鬱症이되는 生殖器의弱小 가엽기도帶妻도못한다



人生無上의幸福을빼앗기는 人間廢의人間이되는 生殖器의發育不全과 性的機能障害의 大部分은 거의 固不自然手淫이原因이라고한다 行爲의結果는 發育力을阻止해서 一定한年齡에到達해도短小하야 可憐하게 靑春期를 虛送하게되며 男性的鬪爭心까지도衰退식혀 終에는人生의落伍者로되는것인대 本所發行의『最新强大法』을읽어보면 自己의性器는 果然普通程度가되는가? 男子의生殖器는 何故로發育하는가 性的障害者에外 手淫常習者에와 小心憂鬱症…

東京廣容療法硏究所 東京府中野町 申込하면 無代進呈함

新築貸家
○鐘路三丁目電車通 煉瓦造三階建貸店舖二事務所 床面積各階共三十六坪
○鐘路四丁目電車通 煉瓦造二階建貸店舖二事務所 宅(十七坪)附 床面積各階共二十六坪位
有何レモ新築建物 朝鮮建住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十五番地
東京建物株式會社京城支店
電話本局 二三八一、一六八一番

リード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申請次第型錄進呈)
釜山府寶水町一丁目 城野製作所

金儲 此品五十錢相場 此品八十錢相場
見出し儲られよ『金銀銅貨幣名鑑』は四錢切手九枚送れ 名鑑記載の値段で買受す
發賣元 大阪東淀川局區內 國民日報係

理硏淸酒 新世界 高尙한風味! 日本酒藝術의 最高結晶新世界
宿醉업고 血壓亢進에支障이업다
大鮮釀造株式會社

本社平壤支局 電話一〇四四番

우수한치림약 리베ー루 염려말고 꼭한번 시용하시오 의심말고
五日分
大阪市東區 竹村製劑所
全國藥店에잇슴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電話本局(2)一八四八番

創立 明治三十二年
京城 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出張所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本町一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三千浦、統營、馬山、麗水、海州、鎭南浦、新義州

山口樂器店鍾路支店
ビクター 빅타ー ポリドール 포리도ー루 コロムビア 콜럼비아 帝蓄 テイチク 蓄音器
빅타ー 一四五、〇〇부터 各種
포리도ー루 二八、〇〇부터 各種
콜럼비아 三三、〇〇부터 各種
帝蓄 二七、〇〇부터 各種
在庫豐富 今月新譜레코ー드 全部具備합니다
京城府鍾路二丁目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補缺募集)十一月十日 中等科第一部、第二部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本五、三六〇番

第84回生徒募集 京城高等簿記學院 (夜間)
新學期開始(補缺募集)十一月十日 就職紹介
京城府黃金町六丁目 電本五、三六〇番

時計士養成
◇通信指導도함 內容送呈
假事務所 京城府蓮池町六二ノ一 京城時計修理院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

모루히네中毒治療劑 鎭痛 鎭咳 후로모힝
包裝 一〇瓦入 五〇瓦入 一〇〇瓦入
(但醫師に限る)
總販賣元 不老藥局
京城府仁寺町七五番地 電話光化門(3)二六八九番 振替京城二七四五〇番

아푸거나・쓰리지안코・爽快하게잘듯는

대학목약

註冊商標

大學目藥

半島의 舞姬 崔承喜孃 曰

名眸의 秘訣은 大學目藥의 愛用에 잇습니다、同胞諸孃이여 彼此에 아름다운 强한 눈을 가집시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兼治氏
醫學博士 山中崔之氏
醫學博士 豊田正道氏
推奬

流線型容器

스마―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 治療에 힘쓰라

眼疾原因의 거의 全部가 不潔과 榮養不良에 잇습니다、塵埃와 煤煙과 때에 더러운 얼골과 눈을 씻지 안커나 더러운 손으로 눈을 문지르거가해서 眼疾이 생깁니다、太陽의 强한 紫外線과 컴컴한 電燈下에서 일을 하거나 細微한 文字를 읽거나 하는 일로 해서도 눈은 疲勞하야 弱해집니다、눈이 붉어지거나 눈곱이 끼거나 좀 아푸거나 할 때에 곳 治療를 加하면 病이 되지 안코 말 것이라도 治療를 加하지 안코 버려두는 故로 病이 되는 것이며 病이 된 뒤에는 治療가 길게 끄는 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 强하고 곱게 하는 法

眼疾의 眞正한 治療法은 于先 大學法眼藥(目藥에 添付)一錠을 곱부 半分의 熱湯에 녹여서 시킨 뒤에 까―제에 적시어 눈의 안팟을 輕하게 몃번이고 씻습니다、다음에 大學目藥 二三滴을 點眼합니다、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 지금까지 좀처럼 낫지 안튼 眼疾도 顯著히 快差해 갑니다。

또、지금은 눈이 나뿌지 안트래도 每日 豫防해두면 眼疾이 되지 안코 맙니다、그것은 每朝洗面後에 大學目藥을 一二滴 點眼하면 고만입니다、아츰엔 눈곱이 끼고 해서 第一 不潔할 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 눈을 保有할 수 잇습니다、特히 婦人의 美眼法으로는 이것이 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 高級 眼科藥

大學은 眼科醫學의 泰斗 五大博士의 推奬하시는 바 治療力이 極히 强한 目藥으로 殺菌、防腐、收斂의 效果와 專賣特許製劑 우르비올레긴이라는 紫外線防止藥까지 配劑되엿는 故로 단한가지로 實로 左의 세 가지 作用을 가젓습니다。

一、眼疾을 速히 治癒하는 힘
二、눈을 아름다웁게 하는 힘
三、紫外線의 害를 防止하는 힘

따라서 眼疾이 잇는 분이 쓰시면 速히 回復하고、健眼하신 분이 쓰시면 强한 눈・고운 눈이 되고、老人이 쓰시면 視力이 回復되고 바다와 山에서 쓰면 紫外線의 害를 밧지 안코 맙니다。

아이들에게 小兒用 大學目藥

大學目藥은 조곰도 아푸거나 쓰리지 안코써 爽快한 氣分을 주는 故로 아이들에게 쓸지라도 괜찬습니다마는 十歲以下의 小兒에게는 小兒의 눈에 맛게 한 小兒用大學目藥이 잇습니다

硼酸보다나흔 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 最新殺菌藥 너이보르미친을 主藥을 삼은 强力한 消毒力과 治療力과 點眼藥의 作用을 돕는 効果가 잇는 洗眼藥입니다 大學獨特의 創製品으로 完全消毒 싸니레―프 包裝을 하야 大學目藥 一瓶마다 添付하엿습니다 不足하시거든 洗眼藥만의 賣品도 잇습니다

適應症
○[illegible] ○[illegible]目 ○[illegible] ○도라홈 ○[illegible]目 ○疲勞眼 ○다래기 ○麥粒腫 ○結膜炎 ○쑤시는눈 ○[illegible]目 ○흐린눈 ○光線眼炎 ○[illegible]目 ○打目 ○상한눈 ○삼눈 ○진안질

定價
點眼器入 케―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눈케―스) 五十錢
特大瓶付(瓶) 一圓

케―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家庭

사는형편보아서 분에넘는옷치레
우리도이점에드러서는세계적
살기힘들기도이까닭

조선사람의 생활정도를서양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되지안습니다 조선사람의 영양부족과때병이만흔것도 결국은 음식을 잘먹지못하고 그저되는대로 배만 부르게하야 영양을 돌보지안흔데 원인이잇습니다.

의식주(衣食住)속에 먹는것과 거처하는집은 그사람들보다 떠러저잇스면서 옷을 입는데는 정도가 떠러지기는커녕 되려 세계적으로 높은수준에까지 올라가라고봅니다.

영국사람은 한사람이매양복네벌을 가진 통계가 나타나잇고 미국사람은 일곱벌입니다.

그런데 조선사람은 어떠습니까 그사람네들보다 만흐면만하지 결코적은편은 아닙니다.

이러한통계를볼때 얼마나 눈물겨웁게 우습습니까 먹지못하야 병이나더라도 의복은 장만하야하며 여러벌두고 입어야한다는것은 리치에 맞지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부터 동방례의지국이라하야 례의를조중히하던 관계로 외식과의복을중상하게 되엿습니다.

그리고 기후의변화가 급하므로 여기알맞게 하기위하야 자연옷을 철철에 만히가지게되는것입니다

양복으로 말하더라도 영국같은데서는 라사복으로를 늘히 지나는데 조선서는이러치안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양복 가을에는가을양복 여름에는『아사』복으로 그리고 집에드러와서는 조선옷을 입는데 그철그철에따라서 말쑥하게 채릴수잇도록 거러놧습니다

이것은 양복이라는구미의 옷을입는 한편에 조선재래의 전통을 버릴수 업스며 거처하는집의 구조가 비록 양복을입을만치 옛날그대로인까닭에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하기위하야 하는수업는일입니다

이것을 과도기에잇는조선사람의 이중생활이라고하는것입니다.

통계상에나타난 생활비를 보면 월급쟁이는 의복비에 一三퍼-센트 로동자는一〇퍼센트 자작농은 六퍼-센트 소작농은 六퍼-센트입니다

이통계를보면 월급쟁이는 외식만을 치장하는데 얼마나 허생을하고잇는지 알겟습니다.

의복이란 칩고 더운것을 막는것이 근본적이며 그다음에는 례의를 주장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요사히는 모다가 허영을 만족시키기위하야소용도 업는의복을 만히만드러두니 그폐가여간아닙니다

이것보다도 귀중한생명이 좌우되는 몸을 튼튼케하기위하야 조흔음식을 먹도록 하는것이 올흘것입니다

옷감을 선[illegible] 첫재이중생활을 처치할것입니다 그리고옷이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그목적을 정당히 알어야할것입니다

현대의 생활에는 남자의 양복은 벗서 떠날수업는것으로되여잇습니다

그대신 남자도 집에서조흔조선옷을 입지말고 아모러케나 자리옷정도로 조선옷을 리용하도록하며 외출할때만 양복을 입게습관을 드리지안흐면 안됩니다

녀자는 아즉조선옷을 만히입습니다

장농속에 얼마던지 조흔옷을 너허두는것이 한가지 자랑이나 생각하지말고 필요한의복외는 최소한도로가지도록 하는것이 조흔것입니다

그리고 양장이소용되거든 이것도 남자의양복처럼 외출에는 양장을하되 집에서는 아모리케나 질긴조선옷을 가라입도록 규칙을세우는것이 조흘것입니다

먹기는작고 울녀가는데며 지못하야 병이날지경이라도 의복만흘흘히 가지라는것은 빨가벗고 도령차고단이는것처럼 우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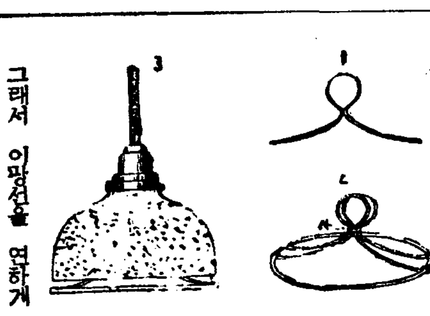
간장이 옷에뛰엇슬때

간장이나 반찬물이나 옷에떠러젓슬때는 그냥곳씨처버리면된다고 물수건가튼것으로 씻는것이보통인데 알고보면그것은 지지안케만드는 장본입니다

그보다도 그냥버려두는것도나종에곤난합니다 그럼으로 간장이나 반찬물이떠러지거든 곳소곰을 발너두십시요 이러케하면 나종에씻처도 감쪽가치 얼룩이가 안집니다

간단히될수잇는 간접조명장치
철사사와조히만잇스면돼

보통가정에서쓰는 전등갓은 유리로만든것이므로 아모리하야도 광선의 반사가 강하고 사람에따라서는 눈이따분해지는수도 잇습니다



그래서 이광선을 연하게 하는방법을 소개하겟습니다 재료는 주석 십륙번선(十六番線)과 창호지만 잇스면 됩니다 만드는법은 전등갓의 직경에맞추어서 철사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제일도와가치 고리를 만들고 한번전구(電球)를끼워서갓보다 세푼가량 길게하야 그양끗을 굽혀서 재이도와가치 맴질을 합니다 그리고(가)의부분은 철사고리를 만들어서 맴니다. 전기스탠드를보면 갓내부에철사로 전구끼우는것을 만드러두엇는데 그와가치 만들면됩니다

이레에 창호지를 동글게오려부치고 제삽도와가치 고리로 전구를끼우면 광선은 그미터발려잇는 창호지를 뚫코빗치므로 대단히 연한맛이납니다 또한이러케하면버레가 전등에 날러들지안습니다.

알고서는못버릴 녁마와수지
재생공장에만드러가면 새옷감새조히가돼나와

요사히는 직물(織物)과조히등속이 대단히비싸젓습니다 그와동시에 헌겁과헌신문지갑도 상당히 올랏습니다.

가정경제를 조리잇게 하기위하야도 이러한 폐물을 그냥두는것은 조치못합니다.

가정내에 필요치안흔 폐물은 할일업시 집안만 어수선하게하고 소용이업스니 이러케비쌀적에녁마전에 내여보내시도록 하는게엇덧습니까

집안에서 쓸만한것 가령밧갓양반의 와이샤쓰 떠러진것을어린이들의 부라우스로 꼬처입혓다던지 흑은물건 살때싼조히로 헌괴짝을 바른다던지 수첩을만드러서 간단한것을 적어넛는것가튼것은 모다긴절히 리용되는것이나 헌신문지쪽은 그냥두어도 소용이업습니다

가정에서는 도라단이는 수지장사에게 파러버리는것이 보통인데 이바게도 쓰레기통을뒤저서 폐물을 차지러다니는사람들을 보지안습니까 대체 어려케 헌조히쪼각과 헌겁들을 주서다무엇을 만드는지 아시겟서요

위선 녁마전에서는 매일가치 도라다니며 모은것을 다시도매하는곳으로 넘김니다.

이러케되면 여기서는 한번큰가마솟에 이것을 너코쩌서 소독한다음 이것을 다시 큰 공장에 파러넘김니다.

공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다시 갑쪽가티 훌륭한 직물과조히를 만드러냄니다.

무명헌겁은 그중에도 제일만히 녁마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기차나기선의 기름따개로도 상당히 리용되며 양복속넛는데나 실로 다시뽑습니다.

이것을 말끔하게 빠라가지고 공장에서쓰는 걸네나 가방안거죽이나 그러치안흐면 염색하야 다시 짜내게됩니다.

이러케 못쓰게된헌겁은 양지원료로도 아조 상등양지의 원료가되며 내각인쇄소(內閣印刷所)나 왕자제지공장(王子製紙)가튼데에서 다시 신문지로 만드러냄니다.

재미잇는것은 모기장, 헌겁은 식당에서쓰는 조히내푸킨의원료가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무명은 세루로이드원료로도쓰힘니다.

모스린이나 라샤의헌겁은 담뇨만드는원료가되며 다시짜내기도하고 털양말실을만듭니다.

여자들의머리를찐것은 그럴로 간장을만드러낸다는 화지넘이잇는데 사람의머리카락은 여러가지영양소가만히드러잇스므로 금후의연구에따라서 어떠한것이나라날지모릅니다 그럿아니라 저금도여러가지 모직물의원료가됩니다

신문지의원료는 파이프입니다 이것도 원료부족으로 말며아마 곤난을당하고잇습니다 성한신문지는 그냥잉크만빼버리고 새것이되는수도잇스며 조곰험은것은 다시조히로만드러짐니다.

이러케녀러가지로 귀중한폐물을 여러분이 아지못하는사이에 집안에서 그냥썩고잇습니다. 어것들을 모두적절하게리용하는것도 살림규모에 한가지중요한것이아니겟습니까

서조

가마귀 검다하고
백노야 웃지마라
거치 거믄들
속조차 거물소냐
것희고 속거문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여셔조는 제금으로부터오백년전 리직(李稷)이란사람이지은것이다

(글과그림 오병하)

향토색을무더둔 전상동 방물판냄새
초립이나가기는일년에네다섯 이십년째걸려잇는말안장

언-백화점 어느백화점할것업시 여러분의 생활필수품의 전부를 구비하게 노코팔며 여러분도 의례히 거기서물건을 살줄아는것이 현대생활의 한가지 특징이냥 생각하고잇스나 실상은 옛날에도 백화점은 잇섯습니다 아시는분이 몃분되지안흘것갓습니다마는 종로뒷골목에 드러가서 동상전이란는것이 그것입니다

요사이는 여러층되는 큰양옥집을짓고 백화점을 꾸며 노코잇스나 옛날에는 그냥 단층집을 너르게 꾸며노코 한칸에 한사람식안저서 전을봅니다

말이 동상전이라하니 한지붕이며 한사람의 장사치가 잇는것가트나 그안에 드러가보면여러가게가 벌려저잇서서 이모든것이 요새 백화점모양으로 세집을 쓰고잇습니다 그리하야 이전부의상점이 동상전입니다

옛날백화점은 요사이는 누가 차저주는이도업고 그저특별한물건을 사러오는 손님만이 드나들따름입니다.

이백화점에는 요사이는 주장 옛물건만팔고잇는데 갓 망건 초립 쪽도리 남바위 조바귀가튼것을팔고잇습니다 고색이창연한것들도 사는사람은 잇는가봅니다

갓은 통영에서만드는 소위통영갓을 파는데 일원짜리에서부터 [illegible]이 십오원짜리까지 잇습니다. 하로에 한개가팔릴가 말가하며 망건역시 그런데값은 삼원에서부터 십오원까지 잇니다 망건은 전라도 진계망건이 웃거리라고합니다

쪽도리는 정말예물건중에도 제일 사치스러운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서만드는것인데 륙십전에서부터 상등이 일원오십전입니다.

초립은 송도초립—개성서만드는것인데 일년에 겨우 다섯개만 팔려도 잘팔렷다고하도록 찾는사람이업습니다 그것도 어듸 시향이쓰랴고 사가는게아니라 연극이나 활동사진에 쓰랴고 사간다는겝니다.

한개에 이원으로부터 삼원내외면 상등입니다.

조바귀는 요사이도 부인네가 만히쓰는데 올겨울에 쓸것으로 벌단조바귀가 팔십전 내외며양단은이원까지입니다

남바위는 상등품이 팔피라하는것인데 중국고양이 껍질로만든것이니 오원내외며 토끼껍질로만든것은 이원이면살수잇습니다 어런것은 겨울에 [illegible]인베가 만히사간다고 합니다

이밧게도 여러가지물건이잇스나 그것을여기서 다이야기하랴면 한정이 업겟고 홈상보수리하야 요사이도 기생들이 춤출때쓰는 벙거지가 잇습니다 이것은 이원에서 사원까지이며 남장복 전부한벌에 칠원에서 십오원까지이며 녀장복은 륙원에서부터 십삼원짜리까지 잇습니다 장복이라하는것은 사모판대란발입니다 여기한벌이라하면은인에 쓰는 오리까지 드러서한벌이라고합니다

끄트로 기둥에 말안장한벌이 걸려잇는데 몬두녹이슬고 허러지긴했스나 오랜예물건의 조흔모습만은 남어잇습니다 얼마나고 무르니 값은 말할수업고팍자리에걸려잇기를 이십년이 넘는다고 한니다

시대가 작고변천하야 멀지안흔장래에는 이도사가는니가 전여업스리라고상점수인은 탄식하고잇스나 그래도백화점이라신식전외통을놓고 무엇을수는밧고잇는것이 눈물겨웁니다.

입술이터저 고생하는분
입모습의매력을보전하자면

치워지면 입술이 트고 밧삭말러서 찌저지는듯이 아픈이는 업습니까

입술이 트는것은 감기로 몸에 열이노픈거나 잘때 이불을 더퍼쓰고자서 트는수가잇습니다 외부적인원인으로서는 찬바람에 부다칠때 또는『루-주』속에 드러잇는 향료(香料)와납(鉛)이 피부를 자극하는까닭입니다

그래서 입술이트기쉬운 겨울에는 얼골과 함께 입술에도 게올리해서는안됩니다

루-주를 첫재잘골라서 쓰도록하십시요 분이나 연지는 주의하고 골라쓰는분이라도 루-주만은 그저 움직일때 지어지지안흐면 안된다는정도로 아모리케나 골라씁니다.

그러나 움직일때 지워지지안흔것만이 조흔것이 안임니다. 차라리 잘지어지는것이 입술에 해롭지안코 조흔것입니도 모릅니다.

정착성(定着性)이 강한『루-주』를쓰면 입술의 자연색을 업새버려서『루-주』를 지어버린뒤에도 보기가흉합니다 여더한『루-주』라도 밤에잘때는반드시 콜드크림이나 또는 올리-브기름을 흡벅 칠해서『루-주』를 씨처버리고 자는것이조흡니다.

더욱길다란 연필처럼만든『루-주』는 잘때칠하고자면 자연역려어서 입술이트는고야맙니다.

입술에 제일조흔것은 물론된루-주입니다

옛날연지처럼 접시에 개여서 쓰는것입으로 트지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인화장에는 물론된루-주는 아모리하야도조화가잘되지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에해로운것을넘두에두지안코라도 회장의조회를 가지랴면 이것을 쓰는수밧게업습니다.

만약연필처럼된 루-주를 쓰실라면 루-주쓰기전에 반드시 콜드크림을발르고 수건으로 슬적더가버린뒤에 바르도록 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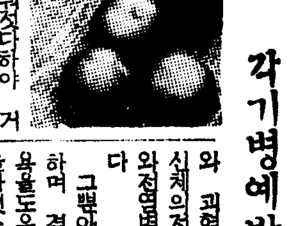
벌서 터버린 입술이면 그냥 루-주가 얼룩이가저서 화장이 잘되지안습니다

그러므로 트지안토록 이것을 꼿친다음에 어엽분화장을 할생각을 가지시고 속히치료하는것이 상책입니다

이것을 낫게하는데는 루-주를 깨끗이 씻처버리고 찐수건으로 한참더펴두엇다가 리스린을 발러도조코 올리-브기룸 꿀가튼것을 만히발르고 자면 하루밤사이에 나허버립니다.

부인네의 입술에 주름살이잡히는것은 나히를 나타낸다고 할으로 젊어지게보이기 위하야는 언제던지 처녀가튼입술을 가지는것이 조흡니다.

결핵병조기에 귤이조태요
각기병에방도되구요



벌서겨울이갓가워젓다하야 거리에는 귤이만히나왓습니다 귤은 조선서나는것이 아니고 일본내지에서 만히나는데 이것이 조선서는 누구가잘겨서먹는 파일이되고마럿습니다

더욱 금년은 원산지에서 아조흔대에 드믄대풍작이라고합니다

귤은 그칠십퍼-센트는가수분으로 회분(灰分)과 탄수화물을가지고잇습니다 비라민에이 삐-가잇고 특히씨는 파일중에 제일만히잇습니다.

따라서 귤을만히먹으면 각기와 괴혈병(壞血病)을 예방하며 신체의저항력을세게하야 각기와결핵병예방에도 특효가잇습니다

그뿐아니라 이와곱겨울강하게하며 결핵환자에게조흡니다 식욕을도우고 영양을회복시키는힘을가젓스므로 결핵초기환자면이것으로도 능히병이나흘수잇습니다.

그러나 아직은귤이너무시여서 그냥먹기가 어색합니다 이러케신것은 더운물에차대신으로 대려먹는것이조흡니다.

협직한귤을 사다가 갈른다지로 써러서 그물을 짜내고 설탕을타서 더운물에 너허서먹으면 제법차잡에서먹는 만도링에에이드와가튼것이됩니다

다만 주의할것은 귤껍질입니다

이것은 보통사람이 버리는것이 일수나 그것을 리용하면 쓰레가 상당히만습니다

첫재 이것을 만히 모두어두엇다가 말리어서 따러먹으면 신경통이나 류-마치스에 효험이 잇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실로 꿰여 다라두엇다가 져이좀되여서 그것이 잘 마르거던 가루로 만드러서 대러먹도록하십시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타서먹으면 마-마레-드처름 맛이조코 손해가 업습니다

손이터서 못쓰는사람은 이것대린물에 손을씻치면 손이 고와집니다.

中篇小說 人生特急 【31】
盧春城 作 崔根培 畵

幸福 (三)

언덕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버려잇고 그새로 곡선(曲線)의 길을 더드머드러가니 울창한노송(老松)과 잣나무새에 노랑벽을한 이칭양관이 주인을 기다리는듯시 고요히 숨어잇섯다. 그리고 마당아페는 절벽이 버러잇고 그우에는 쇠난간이 처잇다. 청구장(靑邱莊)이라고 써부친대문을 드러서서 두사람은 방으로 드러갓다. 아래층에는남향한 십오조방하나와 그여프로 온돌방 둘이부러잇고 다시 부억과 창고와 변소와 목욕실이 잇섯다. 그리고 이층에는 방이 넷이잇고 가운데는 엽십자로복도가 되여잇섯다. 오바사는 방을 일일히 구경하고 영순의인도를 따라 남향한 제일깨끗한 방으로 드러갓다.

『참 조쿤요』

『조호세요』

영순은 우스면서 박사의 모자를 바더 벽에 걸엇다.

『이게 우리들의 홈이야요』

영순은 또이러케 애교를 피우면서 박사의 여프로와서 껴안다시피하고 의자에 안첫다.

방에는 가진조각과 명화가부러잇고 창압『베란다』에는 장미, 수국, 산다화, 련산홍등순조선식회초가 버려잇섯다. 창을열고내다보니 북악산의 고성(古城)어 구렁이가티 산으로 기여올라가고 산정에는 까마케뵈는동립이 섯녀(仙女)의 머리가라가티 그산의 머리를 덥고잇섯다. 빼끔가튼 태양이 산허리에 오밧먼기를 날리우고 하늘에서는 북악산의 령(靈)을 못잇는듯이 구름덩치으로 하여곰 그머리를 뒤싸고 잇섯다. 그리고 산미를 시처가는 물결소리가 은욕의 밀어(密語)를 먼수림에 보내는듯시 조용조용하엿고잇섯다.

영순은 오바사를 여러케 맘대로 정력할수잇는것이 도언는 행복인듯이

『선생님!』

하고 아양하드게 불럿다.

『네?……』

박사도 만족한웃음으로 영순을 바라보앗다.

『선생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암 사랑하구말구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지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서요?』

『이만치 또 그에만배나……』

하고 오바사는 두손을벌려 이만치하고 메아름을그려 영순에게 보엿다.

『정말!』

『누가 새삼스러이 거짓말을합디까?』

『그럼 이다음 조곰이라도 거짓말을하면 나한테 조아리마저요』

『그러시우? 그래요 조아리아니라 머리라두 때리구려……』

오바사는 호호 우스며 영순의 입을 끄러다 자기입에 대엿다. 온몸이 정열에 불타지는 키쓰의 맹화(猛火)!

두사람은 그들의홈을 꿈으로려보내는듯이 서로 몸을 부여안고 눈을 감앗다. 앞산에서 뻐국이 우는소리가 처량히 들렷다.

얼마후에 영순은

『선생님 이제부터는 여기 게서요. 따꼿으로 가시면 안돼요』

하고 명령이나하듯이 박사를바라봣다.

『허허 그러지요 큰일이구려. 그러나 우리 아씨하라는대로할수박게! 허허』

『이제부터 여기서 식사와 주무시기까지 하시고 자동차로 문안을다니서요』

『그러나 좀 가깝치안허요 나혼자야……』

『왜 혼자야요』

『그럼 누가 잇소?』

『아 난 어데가고요!』

영순은 박사를 때리는 시늉을 하며 다시 말을 계속하며

『나두 매일 나올께요. 아침에 나왓다가 밤에 드러가든지…… 혹은 가치 잇셔두 조쿠』

『그럼 조케요』

『암! 스위-홈이지요. 호호』

두사람은 또 한번바라보고 유쾌한 웃음을 우섯다.

영순은 여메잇스트레코-드를트러노핫다. 『스위-홈』이라는『멘델』의 무도곡이잇다. 후에겨운 오바사는 레-코드에 마처그의숙한 딴스를 한바탕추엇다.

내복약을 장복해도 낫지안튼 대하증이 와세돈球로근치는깃뿜을 어덧습니다 (郭山) 李正實

그것은 먹는약으로는 부인병이낫지안는까닭에

그곳케 낫지안는것입니다 즉 부인병 화근이 어느곳에 잇스며 그곳을 바로직접곳처야만 부인병이 낫는다는것을 몰으시라압니다. 대체로 부인병이란 자궁속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곳에 혼집과조직에고장을일으켜서 붓게 만들며 쑤시게하고 진물는게하야 그곳에서 진물과 고름을 나오게하니 (이것이 대하물입니다) 부인병에걸니면 반드시 대하증이 잇게되는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리하야 그곳에서병균이 활동하고잇는때문에 몸전신에까지 고장을일으키게되나니 그것이 즉 여러분이 깨닷는 부인병의증세이니다. 그러므로 그병균이 활동하고잇는 병화근에 직접 치료하여야 속히 낫는것은 정한리치가 아니겟습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곳치랴고 먹는약 (탕약、물약、환약、가루약、주머니에너서 울녀먹는약等) 을먹어가지고는 도저히 그곳에잇는 병균이 죽지안는다는것을 알으셧슬줄밋습니다 그러므로 병화근때문에생긴 딴증세는약에따라 일시적제어는수가잇스나 그역시 병화근이 그대로 남어잇는만큼 근치가되지안코 도로 재발되는것은 이제까지의여러분의경험으로 증명될줄밋습니다. 만일 자궁속에잇는 병균을 죽일만한약을 석그면 그곳까지 약기운이 이르기전에 위장과 오줌보가 녹아버리게될것입니다. 그러타고 직접 국부에넛는약이라면 모도 조흐냐하면 그럿치안습니다. 반듯이 專門病院의치료나 혹은 권위잇는 帝大病院赤十字病院등에서 직접쓰고잇는 신용잇는『와세돈球』로치료하시여만 부인병은 근치되고맘니다.

거문빗나는약을 넛드니 더욱 병이심해젓습니다 (洪原) 金愛羅

그것은 의사전문약이아닌탓

이니 더구나 약한개를가지고 멋칠식쓰게만든것등의위험과 거문물이 흘너내려 속옷을드럽피며 국부근처를 가렵게만들어 더욱 고통을주게되오니 그모도가 유명한대병원에서 림상치료에 쓰지안는것으로도 그효과를아실줄밋습니다

하로에 한번 약한개로 충분

한 효과가 나타나서 부인병이 곳근치되는『와세돈球』는 고훈미라빗夫는 말렁말렁한약으로써 약한개를 국부속에넛코 주무시면 약기운은 병화근에스륵스륵만아니라 모진속에퍼저서 모든고장을 곳침니다

—약가는十二日分……一圓廿錢 廿四日分……二圓卅錢、卅六日分 三圓四十錢、(病院用分)十二圓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등지 하시는대로 조선문으로된『女性의新生理學』을 어느분에게도 거저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學藝

雜記帳

마님·마마님 마누라

婦人 乃至 婦人의 貴를 稱할 때 '大監' '令監' '나리' 아래 '마님'을 加하야 '大監마님' '令監마님' '나리마님'이라고 일러왓스니 어 '마님'은 勿論 오늘날 흔한 婦人네의 尊稱으로 쓰는 '마님'과 꼭 가튼 말이다. 오늘날 와서는 마님이 마치 婦人네에게 對한 專用語로 되다시피 하얏지만은 本來 예전에는 男女間의 通用語엿다. 그러고 지금 우리들이 自己 안해나 흔한 女人을 가르키는 '마누라'란 말과 남의 小室을 가르키는 '마마'란 말도 모도 마님과 同類의 말이요 또 모도 男女를 勿論하고 通用으로 쓰는 말이다. 最近까지 宮中에서는 임금을 大殿마마, 임금의 안해를 中殿마마라고 하얏고 世間에서도 上監을 上監마누라라고 말하는 일이 잇섯다. 그뿐이 아니라 산신마누라니 山神마누라니 하는 말이 잇는데 산신은 할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女性으로 치고 썻다고도 볼수 잇겟스되 山神까지를 女性으로 잡앗스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그外에도 俗談에 終夜讀經不知何마누라喪事라는 말이 잇는바 이 마누라 역시 [illegible]지 안는다. 그러면 마님, 마누라, 마마等 同類의 세말이 어떠케 해서 全部 다 婦人네에 對한 專用語로 돌아 가고 또 어떠케 해서 마님은 보통 흔한 婦人의 尊稱, 마마는 小室이란말, 또 마누라는 自己의 안해나 흔한 女人을 意味하는 말로 서로 分化되얏는가. 言語의 變遷을 硏究하는 사람에게 잇서서는 이 또한 조흔 材料의 하나가 아닐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는 노픈 地位의 婦人이나 婦人의 敬稱으로 '마마' 乃至 '마마라'라는 말을 쓰고 잇다. 偶然한 類似일지는 모른다. 우리의 '마마'라는 말과 滿洲語가 同一하다 當或 우리의 그것도 母系時代 노픈 地位의 할머니를 意味하는 말이 男權時代에 드러와 男子에까지 流用된 것일까. 그러타면 오늘날의 用法은 結局 還元本主로된 셈이 아닌가. 마님은 '마'란 말에 '님'이란 말을 붙친 것으로 마마님의 縮略된 말이요 마누라는 '마마'에다가 '라'를 부치어 '마마라'란 말을 맨드른 것이 '마누라'로 變한듯하다. 疫疾을 마마라고 하는것도 그 病을 怯내고 尊敬하야 敬稱을 쓴 것이지 決코 그 病名은 아니엇슬것이다. (蘇山)

後進에게보내는對答 ②

힘과熱로써나오라

썩은古木은有害언정無益타

柳完熙

『길가는 사람이여! 도라가 『라케데몬』(스팔타를 가르킨) 사람들에게 傳하라 命令을 직히어 우리들은 이곳에 목숨을 바치엇다고―』

이것은 紀元前四八〇年 『스팔타』의 王 『레오니다스』가 一千에 不過한

手兵

을 가지고 波斯의 國王 『크셀크세스』의 引率한 數十倍의 大軍을 마저싸우다가 마침내 衆寡가 敵지못하야 惡戰苦鬪끄테 險難한 戰野를 鮮血로 물드리게된 壯烈한 最後를 말하는것으로 『텔모피레―』 古戰場에서 잇는 鐵製獅子像臺座에 뚜렷이 삭이여잇서 爾來 春風秋雨 二千四百餘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古代希臘의 뜨거운 精神을 길이길이 傳하고잇다.

勿論 當時의 事實로만 본다면 『레오니다스』는 難局을 有利히 轉回치못하고 오직 『텔모피레―』를 死守하려는 한가지 決心아래 結局 全軍敗沒의 쓰라린 怨恨을지엇고 『크셀크세스』는 頑强한 抗敵을擊破하야 遠征의 目的을 達하엿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二千四百餘年前의 지나친 事實로서 한때의 몹은 記錄에 지나지못하는것으로 오늘의 波斯나 希臘에 무슨 利害가잇고 影響이잇스며 또한 누가잇서 希臘의 戰敗를 辱하고 波斯의 得勝을 讚揚하는者가 잇스랴 事實은 事實대로 지나처버리고 말앗다.

時日

은 時日대로 흘러 지나갓는가 그러나 남어잇는것이잇스니 그것은 即 千古에 빗나는 『스팔타』의 精神이다 分義와 節操와 名譽를 爲하야는 못까지라도 生命을 주어도 앗가우지아니하려는 勇敢하고도 아름다운 精神이다 『스팔타』는 이미 갓다 그러나 그 끌는 精神만은 아직까지도 남어잇서 人類의 歷史우에―世界人의 腦裏에 길이길이 빗나고잇지 안흔가 한國家나 民族的으로 넘기어지는 偉大한 그무엇이잇다면 어찌 偶然한 所致로써 허루히 斷定할수 잇슬것인가?

사람은 무엇을 爲하야서 사는가? 即 살려는 目的이 무엇인가? 이가 리울으면 ―『삶』을 爲하야 살고 목숨을 爲하야 산다고― 누구나 얻사리 對答하리라 그리고 『삶』의 對한 執着과 살려는 努力은 사람, 사람의 저마다가 가젓스리라 그러나, 世上에 모든 이를 가저 空間의 한모퉁이를 차지하고 時間的으로 呼吸을 가저 때로 움직이는것만이 살어다는 것이아니요 그實在의

存續

과 呼吸의 維持만을 爲하야 허덕이고 蠢動하는것만이 살려는 努力이 아닌것이다.

첫째 사람은 自己自身을 充分히 認識하여야한다 自己自身의 充分한 認識이 [illegible] 自身의 [illegible] 自身의 完[illegible]한 發揮[illegible]하는것으로 自身의 性能을 깨닷고 [illegible] 乃至 [illegible] 環境과의 [illegible]하고 社會에 對한 責任을 저바리지 안는것이니 自身에 對한 充分한 認識이 잇고서야 비로소 一生行路의 [illegible]한 出發을 지울수잇는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自身의 將來 行하려는 또는 [illegible] 路와 目標를 明確히 세워야할것이니 計劃업는 生涯, 理想업는 生涯는 恰似히 키(舵)일흔 難船의 方向업는 航海와도 가타서 누구나 그 難船의 安全을 保障할수 업고 그 航海의 運命을 헤아릴수 업는거와도가티 一生을두고 光明업는生活, 希望업는

行路

속에서 헤매이게되어 結局은 自身으로서도 厭惡하지마지 두렵고 暗澹한 世界속에서 生涯를 마치게되는것이다

이제 自己自身을 잘 理解하고 充分히 認識하는사람이잇서 自身의 나아갈 밝은길을 發見하고 튼튼한 將來의 目標―遠大한 理想을 세워 마음을 다하고 힘을다하야 꾸준히 邁進할때 여기에서만 비로소 빗나는 生活, 헛되지안흔 生涯를 엇을수잇는것이오 참된 生命을 찾을수잇는것이니 한社會人이 이러할때 그社會全體가 참된 生命을 엇는것이오 한사람이나 집안이 이러할때 그國家 그族屬의 全體가 온전한 生命을 갓는것이다.

『삶』은 힘이요 生命은 熱이다 끗까지 힘을 잃지안코 熱을 持續하야 나아가는 人生이야말로 實로 意義잇는 生活을 갓고 健全한 生命을 갓는 보람잇는 存在가 되는것이다 過去에잇서 또는 現在에잇서 한個人이나 族屬이 비저내는 偉大한 事業속에 ―빗나는 足跡속에 이힘과熱이 뭉키지안는곳이 어데잇스며 또한 이힘과 熱을 갓지안코서 이루어진것이 무어이엇든가? 참으로 의歷史는 힘의 連鎖요 熱의 集積이것이

人類

다

人生에 [illegible] 빗나는 [illegible] 그것은 움직이는 人生은 아니요 살어 잇스면서도 산것이 아니다 그것은 人生이다! 生命이다! 그것은 此生이다―산송장이다! 그것은 屍骸에서 썩은古木과도 가타여 存在는 될지언정 쓸모없는 人生이 허다한 人類의 生命을 좀먹고 社會의 健全함을 좀먹어 시키려니와 社會內에 存在한 이러한 [illegible]의 人間은 社會全體를 病드리게하고 乃至는 그社會全體를 病도 나히고 마는것이다 왜그러냐하면 힘이업고 熱이업는곳에 努力이잇고 努力이업는곳에 發展이업스며 向上이잇슬 發展과 向上의 解放을 妨害하고보면 必然的으로 安逸을 求하고 結局에는 [illegible]에 사로잡히어 그 結果로는 [illegible]

自己

[illegible] 自身의 [illegible] 언는 [illegible] 一身의 利害만을 圖謀하야 [illegible] 自利[illegible] 一般의 [illegible] 하는데까지 일흘것이니 이에 지 일으고보면 人生은 그歷史는 [illegible]까지 [illegible]하얏다고할것이다 어찌 [illegible]뿐이니며 [illegible] 나라?

이에서 나는 다시 말한다 『人生은―生命은 힘과 熱을 加하야한다 人類의 歷史는 힘의 集積이다! 『레오니다스』는 비록 『텔모피레―』를 일헛다 그러나 그 힘과 熱로 빗나는 記錄은―歷史는 오늘날까지 살어잇지안흔가? 빗나고 잇지안흔가?

十月一日

詩情畫意 (十)

黃眞伊 詩
金斗樑 畫

青山裏 碧溪水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一到 滄海하면 다시오기 어려워라
明月이 滿空山한데 쉬여간들 어떠리

「知性」의解明

그歷史性과및自然性

❶ 徐寅植

朝鮮論壇에서도 한동안 文化와 知性의 問題가 씨끄럽게 論議된것갓다

그런데 文化는 嚴密히말하면 人間의 知性의 産物―正確히말하면 人間의 實踐的行動을 媒介로한 知性의 産物이다 文化와知性은 內面的으로 緊密한 連關을 가지고잇는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이곳에서 知性의 性格構造를 大略 考察하여 보기로하겟다

知性에는 누구나 알듯이 두갓의 側面이잇다 心理的過程으로서의 側面과 論理的過程으로서의 側面이 即 그것이다 그中에서 어느 것이나 우리가 重要視하는 側面에 따라 우리는 知性을 普通 두가지 意味로 使用한다

知性을 한낫의 心理的過程으로 볼때에는 그는 心理學에서 말하는바와가티 表象 感情 意志와 區別하야 使用된다. 이것이 일은바 狹義의 知性이다. 그러나 意識의 作用은 機械的作用이아니고 個個의 心的要素가 不可分의 統一을 갓고잇는것이 重要한 特徵이다. 그럼으로 이 區別은 嚴密한 意味에잇서서 正當치안타. 知性 表象 感情 意志는 各各 獨立한 作用形式이아니고 一定한 對象을 志向하는한 意識作用의 여러가지 象狀에 不過하다. 表象의 一面이 知性이며 知性의 一面이 意志이다. 表象의 普遍化된것이 知性이며 知性의 個別化된것이 意志이다.

그럼으로 한거름 더나아가 한낫의 統一的全體로 보는 意識作用의 根本形式을 問題삼을때에 現代哲學의 主潮를 일우고잇는 主意主義는 어것을 意志에서 차젓다. 哲學의 學的基礎를 일운바 心理主義에 두는限 知性은 意志의 一面으로서 人間意志에 從屬된 한낫이다.

知性은 心理的過程으로서는 機能的에서 내지못할것이다 그러나 意識을 한낫의 論理的過程으로볼때에는 그와反對로 意識作用의 根本形式은 知性이다 意志는 몰오혀 知性의 一面으로서 知性의일은바 構成的作用에잇서서 한낫의 志向性밧게 表現하지못한다. 우리는 흔히 意志는 意志로서의 特殊한 構造를 가젓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말은 『칸트』의 形式으로서의 意志에서도 보는바와가티 意志는 意志대로 곳 知性의 法則을 떠날수 업다는말이다. 意志가 意志로서 自己를 發揮할때에는 그는 벌서 意志가 아니고 知性이라할는지도 몰오나 意志가 自己를 發揮할수잇다는것 即 知性의 對象이 될수잇다는것은 곳 意志가 知性的構造를 가젓기때문이다.

이意味에서 우리는 知性을 廣義로 解釋할수잇다

知性은 把握하는方法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가튼 두가지 形態로 논할수잇다. 知性은 直接的으로 그 形態에잇서서 普遍的同一的 『一般』으로서의 自然的性格을 가진것이다 即 知性一般(Denken Überhaupt)으로서의 自然的性格을 가진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超歷史的 一般的性格을 가지고잇다. 그러나 知性은 그 自身의 內面的展開過程에잇서서는 歷史的性格을 가진것이다.

知性은 自然的構造에서 볼때에는 그는 칸트의 個性과 가티 一般的인 形式으로 나타나나 知性의 內面的 展開過程에서 볼때에는 人間의 歷史的 [illegible] 그로 나타난다.

知性을 自然的構造에서 認識하면 知性은 그 自身의 限定的 [illegible]

[illegible]

三百萬볼트나되는 우뢰發生機 (下)

一記者

蓄電機의 內部에 對해서 推察해 본다면 蓄電機內에잇는 二枚의 金屬板에는 陰陽의 電氣가 서로 對抗해서 맛치 雲과 地面의 電氣가 對立하는것과 類似하게된다. 電池의 數를 增加해서 充電을 작고 늘여간다면 마지막에는 對抗한 兩極間에 소리가 나고 불꼿이 일고 陰陽의 電氣는 電流를 通해서 衝突을 中和消散하게된다. 이것이 곳 衝擊이 되여가지고 空中放電 即 雷鳴이 되는 것이다. 그鐵絲의 中間에 抵抗物을 너코 코일을 揷入해서 適當히 調節을 取한다면 적드래도 그 電流의 性質과 더한층 각갑게된다 이것이 다른게아니라 곳 우리의 雷發生機이다

그러면 우리發生機를 맨들기까지에 가장 苦心을 한것으로 말하면 어떠케 廣漠한 大自然그속에서 우리의 性質을 捕捉하여 調査하는데 잇다. 우리의 正體를 眞摯하게 研究한것은 最近約十餘年來의 일로서 一百萬分의 一 동안의 變化를 [illegible]

問題다. 이 難關을 突破하고서 오늘날의 成功을 보게 되기까지에 幾多의 曲折이 업지 안타.

何如튼 오늘날에잇서서는 五百萬볼트 高電壓의것을 맨들어 가지고 하측도 未備는 하나마 人工우리를 生産하고잇다. 이것으로써 여러學者들이 多年間 苦心努力하든바는 相當한 效果를 거두엇다고 볼것이다

落雷防止의 可能

그러면 이러케 困難한 우리 發生機를 어떠케 맨드러 필요로 그러케 맨들려고 햇든가. 장차 무엇에다가 쓸려는 것인가. 벼락의 災害는 往往 사람을 傷하고 물사를 뺏이 아니라 그 送電

線을 發電하는 方法을 使用하고 잇다 우선 測候所에서는 每日가치 天氣豫報를 하고 잇는 한편으로 우리의 豫報隊도 펴고 잇서서 重要한 우리가 잇을곳 한 때는 미리 各地電氣會社에 알리어 주고 잇다. 그러나 그 雷豫報를 바든 電氣會社에서는 各發電所나 變電所에 命하야 非常警戒를 行하야 어느 때 어느곳에 落雷가 잇더라도 곳 復舊工事에 着手할수 잇는 萬全의 準備를 도모함이엇지 그 우리를 事前에 못 떨어지게 한다거나 그 떨어진 자리에 損害가 업게 하는거나 그런것은 決코 아니다. 萬一 우리의 災害를 安全히 免하고저 할진댄 아

文學의 再認識

―創作方法論의 現實的局面―

(二) 尹圭涉

朴英熙氏 또한 『懷疑』와 『不安』의 論中에서 『人間의 本質』 『生活의 本質』 『道德의 本質』 『文學의 本質』을 찾는다하야 가장 基本問題로 『哲學的槪念―即 辨證法的變遷에 關한 槪念을 淸算하라』고 웨치고잇다 『모든것은 變移하나 그것은 外面的形式에 不過하며 人間의 本質 生活의 本質 文學의 本質은 不變한다는것이다』 우리는 이가튼 偉大(!)한 哲學을 압헤노코 그것을 創造할수잇는 氏에게 福이라할것인가 오히려 그것을 活字化할수잇는 現代文化의 禍라고 할것인가 『懷疑』와 『不安』을 눗기는者 決코 나 一個人의게 그치지안흘것이다.

要컨대 그들은 究竟에잇서서 唯物論과 觀念論의 迷妄을 건저준다고 이땅의 哲學界를 混亂시키고잇는 金基錫氏의 折衷主義哲學―文化主義의 哲學的存在인 『存在論』에 學的根據를 찾고야말것이며 (金午星氏에 依하야 벌서 架橋가 논이는듯하나) 東京文壇의 林房雄 小林秀雄 더나아가서는 앙드레·지―드에 잇서서 그들의 最大의 師匠을 求할수잇슬것이며 또한 그들이 짓거리는날 까지는 우리의 [illegible](!)한 自由氏等도 짓거리게될것이다. 따라서 그들과 理論을 展開하는 愚人이 되는 程度의 것이라는것은 지―드와 로망·로랑과의 興受 갓갑게는 讀賣紙上에 揭載된 林房雄對島木健作의 論駁을 읽은 讀者에게는 斷然하기 어렵지안흘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들은 어느때까지나 그들을 追從하야 그들과 對等的地位에서 論爭을 展開한다는것은 俗談에 『칼로물베기』라는 反覆이라고할것이다 차라리 우리는 그들의게 갈곳까지 가라는 態度로서 우리의 雅量과 寬度를 보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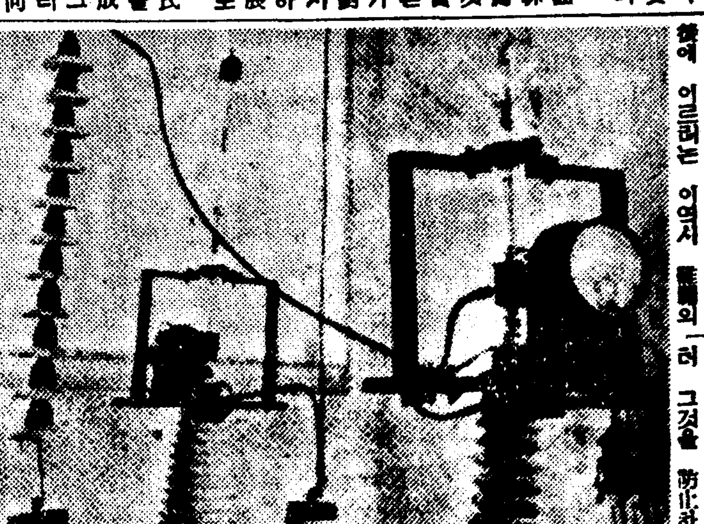
여기에 우리의 論議는 必然的으로 다른 一面에서 提議되고잇는 創作方法論과 文學的探求에로 向하지안흘수업다 그것은 今春來 『휴매니즘』이 比較的整然한 姿勢를 取하고 우리文壇에 波紋을 일으킨데에 따라 主로 從來의 리얼리즘陣營에서 論議되기 始作하얏다.

林和氏는 該論文의 冒頭에서 氏에잇서 觀照主義란 事物에 對한 觀照的 態度로부터 出發하야 現象의 水泡만을 追從하는 敗行的 리얼리즘을 가르친 리얼리즘의 觀照的 攝取에 對한 反撥에서 出發한것으로 氏의 往年의 『浪漫主義』를 비롯하야 今年에 드러 論壇을 唱導케하는 『휴매니즘』과 最近의 리얼리즘論 가운데 나타난 金南天氏의 『告發의 文學』 等도 應揷하야 命名한바이다.

林和氏의 『創作方法에잇서 一面的見解의 克服』을 最近에와서 林和氏의 業蹟으로 文學的探求를 高調하는 論者들에 依하야 論壇에 一貫된 主觀主義 [illegible] 『現實的 [illegible]』 리얼리즘의 [illegible] 一貫된 [illegible] 나아가서는 [illegible] 金南天氏의 『告發의 精神』을 비롯 [illegible]

[illegible]

나는 여기에 便宜上 林和氏의 『寫實主義의 再認識』이란 文을 中心으로 이제까지의 우리의 成果에 若干의 補足을 試하려한다. 그것은 該論文이 單純히 우리의 創作方法의 基本路線을 찾고 잇다는 理解에서나 또는 이제까지 우리 文壇을 휩쓰든 『沈滯』와 『混沌』가운데서 再出發에 어르기까지의 錯綜한 全過程을 分析批判하고 하나의 基本的方向을 차저서 統合하고 整理하려는 努力을 보여준다는 點에서뿐만아니라 내가 只今 注意를 喚起시키려는 『文學』의 再認識과 그에 附隨된 리얼리즘과 現實의 抽象에 잇서서 가장 系統的理論을 차기쉬운 便宜가 잇다는 點에서이다.



漢文易解의 方法

◇…各種의符號를使用하자

(八) 李圭鳳

[illegible]

◀新友 第一輯(旬刊)發行所 京城府鍾路通二丁目一二七 新友社 振替京城二八一三八番 定價一部五錢

◀時事公論 十月號 發行所 東京市本鄕區湯島三組町八一 時事公論社 定價五十錢 送料二錢

◀南鮮公論 第三十號(月刊) 發行所 晋州邑錦町三四三 南鮮公論社 定價一部十錢

◀朝鮮警察 第六十號(週刊) 發行所 京城府初音町一九六 朝鮮警察新報社 振替京城一七七二六番 定價一個月三十錢

◀카톨릭少年 十一月號 發行所 間島省延吉市街 카톨릭少年社 振替京城二五〇二六番 定價八錢 送料一錢

◀朝鮮實業俱樂部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二五 朝鮮實業俱樂部社 振替京城八五四〇番 定價五十錢 送料四錢

◀朝鮮商工獎勵館報 十月號 發行所 京府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商品調査硏究會 定價十錢

腸가다루로衰弱해서 入營도延期햇다

(岡山) 山城隆

나는本年二十二歲의靑年입니다 生來身體는 至極히튼튼한편이드니 昨年의徵兵檢査에는甲種으로合格해서 一家의名譽라고깃버햇섯습니다

그런대不幸히도 入營一個月前에腸을害치고 每朝의大便에조곰과가석거나옴으로大端히놀내여곳醫師의診察을바든즉 大腸카다루에熱이잇다고합니다

(中略) 그리는中入營할날도되야出發햇스나再檢査의結果는翌年으로미루게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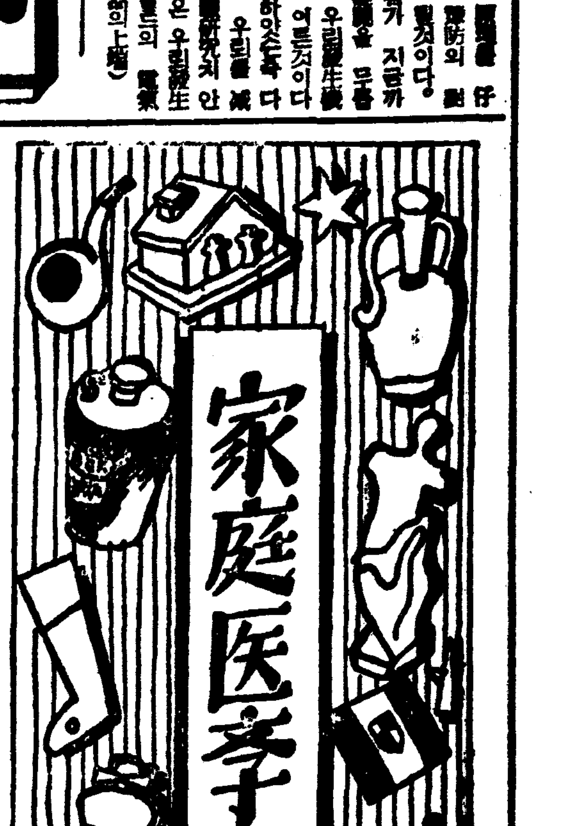
그後全快라고할만치恢復햇스나이불에再發해서 밤에잘때도 배가끌어서잠을못자고, 食事도 늘어지안코衰弱해가는一方 今年

度檢査에는기어코丙種이되고마릿습니다

여러날娛然友人이차저와서 『錠劑わかもと』가 잘낫는다니 가입코잇는것을보고 腸病이면 『錠劑わかもと』가잘낫는다니 먹어보라고하므로 早速히父親에게말하야사오도록하엿습니다 一二日동안은아무效果가업슴으로 效果가업는것이안인가하고不安히생각하엿사오나 繼續服用하는동안 배속도대단히便하고 每日便通도조아젓습니다 그後는 漸漸나아저서 熱도업고 밤에는 寢睡를하게되엿습니다 요지음은 일도조곰식 하게되여 모내기를 압두고 매우질겨운 날을보내고잇습니다

秋와慢性胃腸病

―食物中毒의豫防과、지부스、赤痢等의傳染病의流行에豫備하라。



더운때에는 胃腸도 衰弱해잇다 그우에 食物이 腐敗하기쉬우므로 飮食物에 注意를 하지 안흐면 안되겟다고 마음의 緊張이잇지마는 가을이되야 食慾이 늘고 氣分도조아저가면 自然 食物에 對한 注意도덜해저서 過食 過飮을하던지나쁜飮食을攝取하기 쉽습니다

特히 慢性胃腸病者는 모처럼 維持해온

胃腸의 狀態를 惡化

식히든지 또는 食物의 不注意로 中毒을 일으키던지 赤痢, 지부스等의 傳染病에 걸릴 念慮도 만흔故로 가장 警戒를 要합니다

昭和十年度의 統計를 보드래도 赤痢(疫痢를 包含)지부스의 罹病者는 八, 九, 十月이 가장 만코 八月만도 一萬七千人餘를 세고 잇습니다마는 그原因의 大半은 此等胃腸病者의 增加에 잇다고

입니다

即 胃에잇서서는 胃液中의 鹽酸과 白血球가 菌을 溶解, 喰殺하고 腸에잇서서는

更히 小腸에 至하면

腸의 自家殺菌作用에 依하야 거운 해서 칠신傳染病이나 食物中毒

이것을 無力狀態로 만드러 버리는 것이지마는 此等作用은 胃腸粘膜이 損傷되고 잇던지 分泌機能이 衰弱해잇스면 顯著히 活動이 低下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오래동안 胃腸을 알코잇는 사람은 健康한이에 比해서 칠신傳染病이나 食物中毒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病의 治療를 圖謀

이러한 警戒에는 하는것이 緊要하며 그 方法으로서 推奬되고잇는 것은 『錠劑わかもと』의 服用입니다 이製劑는 여러가지 胃腸病의 根本인 胃腸의 機能을 强하게하고 胃腸自身의 活動을 旺盛케하는 故로 自然消化吸收도 조케되고 分泌機能과 自家殺菌作用도 旺盛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赤痢와 지부스와 가튼 各種病原菌에 對해서도 抵抗力이 强하게되고 極病할 危險도 大端히 減하게됩니다마는 또한 過食過飮으로 오는 胃腸가다루와 腸內細胞의 異常發酵를 增大하는 便秘에도 有效한 故로 慢性胃腸病으로 苦生하시는 분에게는 참으로 適當한 藥劑입니다. 그리고 連用해서 副作用이 업는것도 이藥의 特色입니다.

只今이離乳의好機!

★幼兒의抵抗力과食餌耐率에對하야

가을은 애기네의 젓을 떼는대가 장 失敗가 적은 季節입니다마는그러라고해서 放心하는것은 大禁입니다 離乳의 方法을 잘못햇기 때문에

後七, 八個月이 되여도 顔色이 붉은빗이 업고 色澤도 나쁘고 얼른 보기에는 살이 쩟듯도하나 그것은 身體의 抵抗力이 弱해진 證據로 가티보이는 일이 잇습니다. 이것은 健康해서 살찐는것이 아닌것 이

◇……消化

不良과 榮養障碍를 일으켜서 모처럼 順調로 發育해온 애기네를 衰弱케하는 例는 흔히 잇는 일입니다.

離乳를 行하는데 當하야 가장 注意할것은 애기네의 身體의 抵抗力과 食餌耐率의 如何입니다

호히 母乳로 자라는 애기로서 生後 [illegible]

서이와가튼 애기네는 胃腸을 튼튼히하야 抵抗力과 免疫力을 强케하기 爲하야 『錠劑わかもと』를 二三錠式 부스러트려서 주는 것이 效果的입니다

도한지금까지 牛乳가 튼것을 홀로 消化하던 애기들도 一二個月이나 突然牛乳를 먹지안코잇다가 그後再次牛乳를 먹으면 泄瀉하는 경우가만습니다

이것은 牛乳에 對한 애기의 食餌耐率이 低下한 證據로서 이 食餌耐率의 如何는 離乳上 重大한 影響을 밋치게합니다

食餌耐率이라는것은 簡單히 말하면 언더한 兒孩가 A라는 食物을 얼마나 耐할수잇는 量을 그兒孩가 A라는 食物에 對한 食餌耐率이라고합니다. 그런故로 食餌耐率의 量까지는 A라는 食物을 故障업시 消化할수가 잇지마는 그 量을 超過하면 故障이 생기는 것입니다

離乳期의 어린애는 여러 食物에 對해서도 食餌耐率이 極히 弱하므로

◇……食物

에 對해서도 敏感하야 조곰만 多量으로 攝取하면 泄瀉하던지 吐하던지하므로 이 理致를 잘알아서 새로운 食物은 될수잇는대로 조곰식 주고 次第로 量을 늘여 가도록 하는 대

그우에 이 藥에는 各種의 榮養素가 多量히 含有해잇고 特히 發育을 促進하고 體重을 增加하는 效果가 잇는 리징, 히스치징等의 榮養素도 잇스므로 이것을 離乳後도 繼續해서 服用시키면 離乳後의 發育도 非常히 조하집니다

이 『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側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廿五日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五圓이라는 二種이 一日分 겨우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 廉價로 發賣하고잇습니다

勸業債券二千枚進呈

大懸賞

わかもと의空箱에 누구나 할수잇는 容易한 懸賞으로 二千名에 勸業債券의 大特賞을 全國藥店에서 賣出中

勸業債券 三圓 附金增附

趣味와 娛樂

크리스마스·카-드 發送準備는 지금
海外에친구둔분들에게

異鄕에잇는 同胞에게나 친구들에게 보내는 郵便物은며칠만이면 저편에到着될지? 크리스마스카-드가튼것을 發送할때는 며칠만에 갈수잇는지 그것을念頭에두어야합니다

國內年賀狀과함께 發送하야서 나종에 저편에서 바들때는벌서 봄날이라 百花가피엇슬것이니 어것은失禮千萬이다

海外에보낼 크리스마스카-드에 내일올너허서印刷하랴면 벌서저금부터準備해야한다

◇南北아메리카 (샤틀經由)

샌프란시스코(米)十二日 뉴-욕(米)十五日 와싱톤(米)十七日 방크바-(加)十六日 부에노스아일레스(亞)三十五日

◇歐洲方面 (시베리아經由)

伯林(獨)十三日 런던(英)十六日 巴里(佛)十五日 모스코-(露)十二日 로-마(伊)十七日 추릿히(瑞)十四日

◇亞細亞 (西廻)

아덴(아라비아)二十七日 방코크(샴)十八日 봄베이(印)二十三日 코론보(세일런)十九日 우라디오스톡(露)三日 이스탄불(土)三十八日 마니라(比)十二日 天津三日 上海 四日 하르빈三日

◇애푸리카 (시베리아經由)

알렉산드리아(埃)二十日

◇오-스트라리아

아데레이드 二十五日 시드니 二十三日 멜보롱 二十二日 (東廻)웰링톤(뉴-질랜드)二十二日 호노루루 七日

棋道向上을위해 朝鮮棋院披露式
지난七日市內天香園에서

朝鮮棋道의 向上을위해서 市內仁寺町 七二番地에잇는 朝鮮棋院은 모든 體裁를 更新하고 압흐로 棋道의 振興에 注力하려한다는바 지난七日下午二時부터 市內 天香園에서 名士六十餘名을 招待하여 披露宴을 열엇는데 院長 韓相龍以下 棋士蔡極文、丁奎春、尹周炳諸氏가 出席하여 院長韓相龍氏의開會辭와 來賓 有賀光豊氏의 祝辭가잇슨뒤 棋會로 드러가 一堂이 和氣靄靄한속에 午後十一時頃 閉會하엿다.

世界平和와 家庭平和

마-즈와 結婚한지 얼마안되는 프란시스·레데러-는어느날撮影所를 闊步하고잇섯는데 머리에 씨엿든 帽子가바람에 불려서 떠러저도 그것도 본체만체하고 그대로 거러가기만한다.

『여보 帽子가 떠러젓는데 무엇을 그러케 생각는라고 그것도 모르다』하고 친구가 깨우처주엇슬때 『아니 난 지금 世界平和에對해서 생각하고잇네』

하기는해지마는 실상은 世界平和라는말보담도 家庭平和라고하엿든들 훨신 더適切하지아니하엿슬는지?

希臘語와 타미로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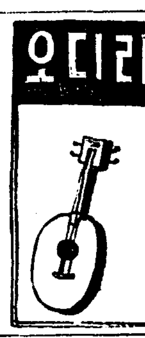
惡役專門의 에이킴、타미로프는 마른役의 必要上 一個月가량 急速히 猛練習을했든데 이것은 내중 꿋까지 잘해서 成功할한심이엿다。그러나 그다음에는 希臘語를 써야하겟슴으로 이번에도 한一週日가량배웟스나 이것은 아모리해도 잘되지안햇다。그러나 여지할수도업서서 드대로얼버명하고 그대로 해 넘겻는데 會社에서 發表하기는 타미로프는 아주 훌륭햇다 그는 希臘에가서 數年間滯在한일이잇섯다하는것을 읽고서冷汗三斗。

朝鮮發聲映畫 "沈淸"完成
二十日頃에市內封切

市內鍾路三丁目파라마운트映畫配給所인 紀新洋行에서 映畫製作部를 新設하고 第一回作品으로 朝鮮古典文學上에燦爛한 光彩를나타낸 沈淸傳을 李基世氏가 脚作하야 安夕影氏監督 李明雨氏撮影으로 全發聲映畫『沈淸』을 製作中이엿든바 京都極東現像所에서錄畫가끗마추어 今月二十日頃에 市內映畫館에서 封切키로되엿는데 全篇을通하야 朝鮮音樂을 더구나 朝鮮女流名唱들의 노래를 伴奏로 朝鮮『토-키-』로서 새로운 試驗이바製作者로서 眞實된 態度와 明朗한 撮影細하고 부드러운 錄音等 朝鮮映畫로서 獨特한境地를 開拓하야 一般의期待가 큰作品이라한다

主演 金素英 石金星 曹錫元 申鉉景 (寫眞은同映畫의一場面)

라디오



九日 (火曜)

◇午後六時童話와童話朗讀 一、童話 대궐잔치……秦霽鳳 二、自作童話朗讀……金光鎬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植物의越冬 徽文高普 李軒求

◇同七時四〇分 講演 國民精神作興週間第三日 一、生活改善에對하야 京城女高 孫貞圭

◇同七時五五分 一、反省戒心에 對하야 延專副校長 兪億兼

◇八時一〇分 軍歌工夫 敵은幾萬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八時二五分 歌詞 一、春眠曲 二、길軍樂 大笒 杖鼓 安鶴仙 黃菊香 金永根 金一宇

◇同八時五五分 連續講談(第二席)『分外不得』 庚秋岡

第一放送

◇同六時 (東)歌物語

◇同六時二五分 (城)講演

◇同七時三〇分 講演(自天津)

◇同八時 (城)尺八

◇同八時一五分 (城)獨唱

◇同八時三五分 (東)新內

◇同九時 (東)講談

十日 (水曜)

◇午前一〇時 『國民精神作興에 關한詔書』奉讀式實況(國語)—總督府前廣場으로부터中繼—

◇同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 밀만두

◇午後〇時〇五分 加倻琴倂唱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바라령 朴綠玉 杖鼓 池龍九

◇同一時一〇(東) 五萬人大合唱(雨天의時는中止) 國民精神總動員報國音樂週間聯合女子音樂體育大會 『明治節式場으로부터中繼』 郡下各高等女學校生徒

指揮 陸軍樂長 山口 常光 指揮 海軍樂長 內藤 淸五

一、參加學校代表者入場行進 (陸軍軍樂隊吹奏) 行進曲『靑年이여』橋本國彦作曲

二、國旗揭揚 (陸軍軍樂隊君ケ代吹奏) 指揮 海軍樂長 內藤 淸五

三、宮城遙拜 四、全員合唱(陸海軍軍樂隊吹奏) 가、國歌 君ケ代(二回) 나、大日本青年團歌(飯田義大作詞 下總晥一作曲) 指揮 陸軍樂長 山口 常光

五、人事 聯合女子音樂體育大會長 乘杉嘉壽

六、祝辭 文部大臣 木戶 幸一

七、高等女學校生徒遙足

八、高等女學校生徒合唱 (陸海軍軍樂隊吹奏) 日本青年歌(乘杉嘉壽作詞橋本國彦作曲)

九、陸海軍軍樂隊合同演奏 行進曲『空軍의威力』海軍軍樂隊編曲 指揮 海軍樂長 內藤 淸五

◇同六時 兒童과先生의時間 一、オ星サマ(讀本卷二、十三課) 二、渡り鳥(讀本卷十、二課) 校洞普通學校兒童 五年生 一年生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菊花이야기』 申 翊 雨

◇同七時四〇分 講演(國民精神作興週間第四日)『克己忍苦의時局認識』『國民精神作興週間의本旨』 大野政務總監 (譯講) 田中德太郎

◇同八時一〇分 軍歌工夫 敵은幾萬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八時二五分 獨唱 一、제비 와가리 뭘리카作曲 二、어머니가자를뉘주신노래 드보르작作曲 三、牧童아네想像을해봐 스콧트作曲 四、가마귀의노래 五、…… 六、나의 귀여운 헬-렌 피아노伴奏 李 耆 子

◇同八時五五分 連續講談(第三席)『分外不得』 庚 秋 岡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三絃

◇同六時(大)物語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東)라듸오드라마

◇同八時三八分(大)義太夫

十一日 (木)

◇午後〇時五分 一、報念 二、새타령 三、星夫歌 申 快 童 丁 南 希

◇同一、一五 家庭時間『衣服과品位』 梨專 任 貞 爀

◇同六時 兒童講話『이삭줍기』 丁 洪 敎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殖銀 鄭 基 南

◇同七時四〇分 講演(國民精神作興週間第五日) 一、公德實行에對하야 (譯講)三橋警務局長 一、滿洲國精神의涵養에對하야 京城師範學校長

◇同八時十分 軍歌工夫 水兵 指導 鈴木美佐保 鈴美合唱團

◇同八時二十五分 音律 靈山會相 中에서 上靈山、中靈山、잔靈山 가락도드리 上旋、잔도드리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東)大合唱 (報國音樂週間) 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一、混聲合唱(管絃樂伴奏) 二、混聲合唱(無伴奏) 三、混聲合唱(管絃樂伴奏) 四、靑 唱(管絃樂伴奏) 五、混聲合唱(管絃樂伴奏) 君が代 郡下各音樂學校合唱團 大日本聯合合唱團 郡下各大學專門學校合唱團 東京音樂學校生徒 管絃樂團 指揮 橋本 國彦 同 大和田愛羅 指揮 橋木 國海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名) 尺八

◇同六時 (城) 合唱

◇同六時二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同八時

◇同八時三〇分(東)箏曲

◇同八時四〇分(大)스켓취

◇九時 (東)大合唱

사진설명
제지-마시오-ㅁ

킹·솔로몬 市內明治座上映

『킹솔로몬』(솔로몬王의寶窟)이 市內明治座에서 封切되기로되엿다 이映畫는 英國 고-몬·브리팃分映畫會社의作品으로서 萬古의 豪奢王 솔로몬이 子孫을위해서 地下의 寶庫에 無盡藏의寶藏를 감추어두엇다는것을 테-마로해서 이것을探險하려는 一種의 探險劇이다 神秘스러운 大自然속에서 모든 險難한條件과 싸워가면서 探險을하엿스나 奇蹟과가튼 偶然으로말미아마 솔로몬의 寶窟은 永遠히 埋沒되어버리고 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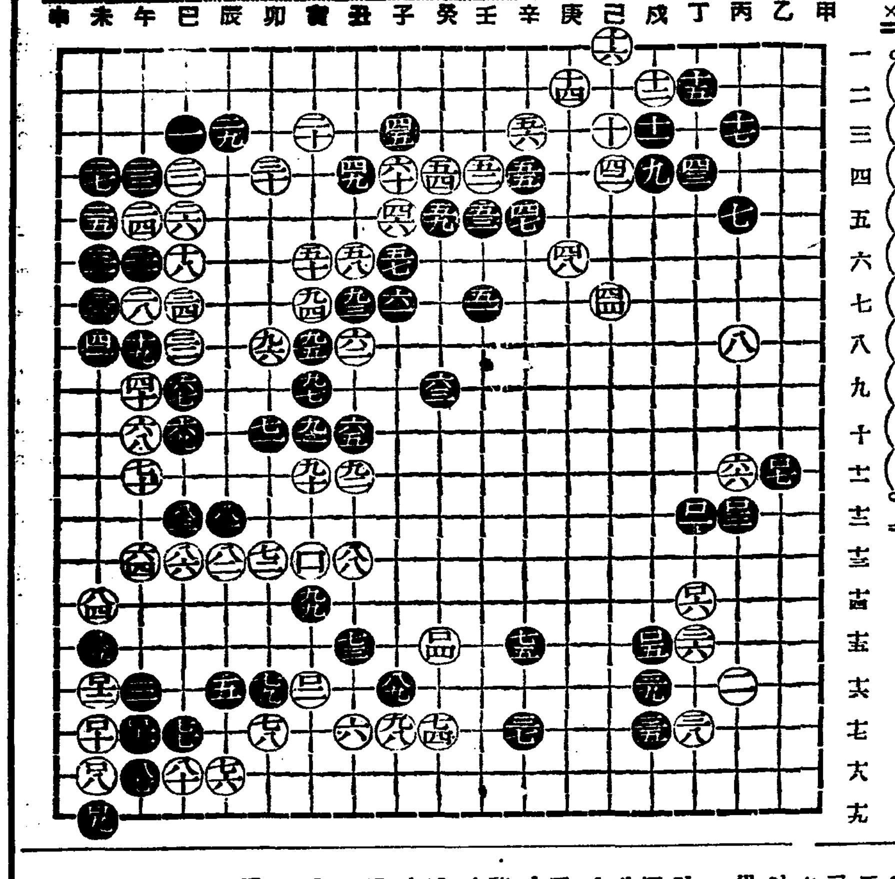
原作은 文豪 라이더·하거-드、監督은 로버-트·스티븐손이라고한다

寫眞은 同映畫의 한場面

國手爭霸譜 (7)
本社獨占

白 丁奎春 黑互先 蔡極文

●九七 寅九 ○九八 子十七 ●九九 寅十四 ○一〇〇 寅十三 ●一〇一 丁十二 ○一〇二 寅十六 ●一〇三 丙十二 ○一〇四 癸十五 ●一〇五 戊十五 ○一〇六 丁十四 ●一〇七 乙十一 ○一〇八 未十八 ●一〇九 未十九 ○一一〇 未十七 ●一一一 午十七 ○一一二 未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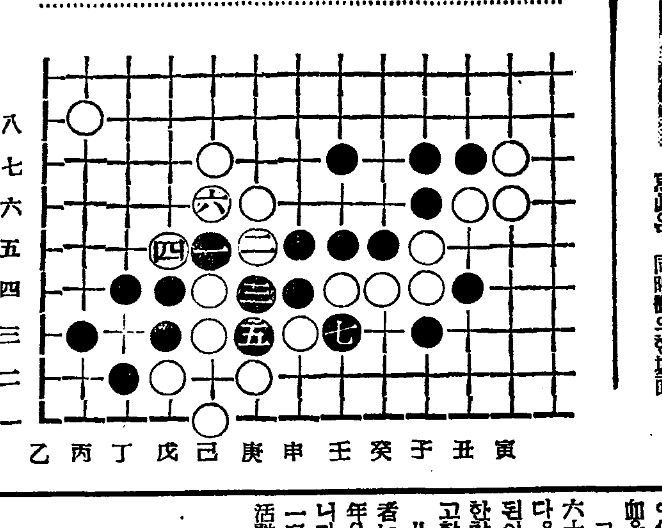


兩將의雄圖大略 戰勢는頂點으로
그러나各有虛隙하니 이또한當局者迷인가

黑九七寅의九는 中央의 白陣을 整備하는 最後의 完手이라고볼수잇다。그러므로 白도 九八 子의十七로 西北邊 自陣을 堅固히하엿는데 黑九九 寅의十四는 亦是 白陣의 連絡과 敵陣의 斷絕을 試한 것이나 黑一〇〇 寅의十三으로 一見上 어戰鬪地帶는 確定이 된것가티 보인다。

그러므로 黑一〇一은 멀리 떠러저 丁의十二에 着手한것이다。그런데 이丁의十二는 黑의 先着으로서는 適宜한곳이니 全局으로보아서 廣漠한條地가 이地帶바게도업거니와 黑이 先着할만한地點도 오직丁의十二가 唯一無二한 地點으로 不淺不深한 適所이다。黑이 丁의十二에 落子할때 普通 手法으로보면 白이 依例히 丙의十二로 預防하고 黑은다시 丁의十三으로 運軍하는데따라 白은 丙의十三으로 追運해서 分界定局이 서로穩便하게될것인데 意外에도 白은 頓不顧見하고 一〇二를寅의十六으로 떠러서 黑의 虛隙을 엿보려는듯한 戰法을썻다。그럼으로 黑一〇三은 丙의十二로 闖入하니 連目數千里의 白陣地가 이로서 東西兩斷이되엿다。그러나 白은여기서도 自陣을도라보지안코亦是 멀니떠러저 一〇四를 癸의十五로 着手하니 대체로이 尋常치아니한 反擊이 무슨險惡한 風雲을包含한 內幕인가? 黑도 또한 當然히 오리라고 미덧든 白의 應手가 두번이나 西角으로 다라나 城壁을 堅固히 하는것을보고서 警戒의 마음이업지는 안헛스나 우선 白陣을 闖入한以上에는 먼저 黑의 北角을 걷드려보는것이 각가운手順임으로 一〇五를 戊의十五로 擧立함에 白도따라서 一〇六丁의十四로 올나서는지라 그러새는 黑이 一〇七을 乙의十一로 자못 積極的인 運軍을 하엿스니 여기서 비로소 이兩將의 心理는 다各各 다른데를 노리는 雄圖大略이 숨어잇는지라 布陣과 築壘가 서로 反擊한것을 짐작할수잇스나 또한 서로 雄圖大略에心醉하여 自陣의 虛隙을 살피지 못하는것은 當局者 迷의感도 업지안타。가령 黑으로 말하면 西角의 陣容이 金城鐵壁과가탓다고 放心하엿스나 반드시 그러치도 아니고 白으로말하면 黑이 비록 東北邊角의 自陣을 切斷하엿드래도 그것이지마는 그도한 반드시 그러치안이나니 가령 參考圖와가치 黑이 己의五에 着手해서 白軍의要衝을 突擊한다면 手順은 반드시 參考圖와 가티되여서 一見 連絡이되든 白軍의 東南邊陣地와 東北邊地가 中斷이되면서 어느한쪽이든지 殲滅의危機에 瀕하지아니할수 업는形便이다。雙方이다가치 自陣의虛隙을가지고잇스면서도 敵軍의十萬大兵을一擧에 殲滅하려는雄圖가 一髮의間隔을두고 成熟한 이戰機야말로 이번版局에서 第一頂點에오른 白熱의 刹那이다。대체 先着의 如何에 따라서 이 戰勢의 進展이 決定될터인데 先着은 白手에 잇는지라 黑陣을 衝擊하는데 黑이 放心을하엿다는것은 의례히 未의十七로 破戶를하려니와 그러면 黑의生路가 綽有餘함으로 거기에드러가지안코 白一〇八을未의十八로 越點을노흐니 이것은果然 神妙奇絕한 用兵이다。黑도하는수업시 一〇九를未의十九로 밧는것은 여기에서 劫이생길것을 豫想한 일이라 當然한 手順에 따라 黑一一〇未의十七로부터 白一一二未의十六까지 이르럿스나 果然戰勢는 압흐로 엇더케 進展되려는지 아직도 局面에는血戰의妖雲이 漂渺하고잇다。(赤松子觀戰記—訂正昨日續譜中 嗚呼將勝은 嗚呼將勝의 誤植이기에 訂正함)

參考圖



腦溢血の前兆とは
頭重、耳鳴、臂肩痛 手足과허리가차고압흐며 動脈硬化로 血壓놉흔분게
偉效가알려진此新療法

近頃과가티 朝夕寒氣를느낄 時節에는 흔이 感氣에 걸리게쉬운것인데 그것이 原因이되여 往往大病을 이르키는일이잇습니다。恒常머리가 무겁다던가、耳鳴、肩臂痛이나며、手足과 허리가차고압흔 이로서 血壓을檢査해보신이가 게십니까。그러한분은 常態보다 놉흔것이普通입니다 이것이야말로、腦溢血의 前兆인대 此好期에治療해두지안흐면 추위가 더해갈수록 動脈은 더욱더욱 硬變해서 나아가서는 可恐할腦溢血을 招來합니다。그런데 原因을말하면 體內에潛在한 病毒과、遺傳毒에 日常嗜好하는 酒、煙草의 毒等이 添加해서 血液을濁하게하야 血行을 妨害하기때문입니다。此病原을 古方醫學에서『瘀血』이라하는대 이것을 排泄하는것이 如何히 治病의 近道가될까

瘀血이잇스면 어째서 高血壓에서 腦溢血로되는가

그러면前述한『瘀血』이 어떠한 禍害를이르키는가 卽이것이 頭內에停滯되면 動脈의硬變에서腦溢血을招來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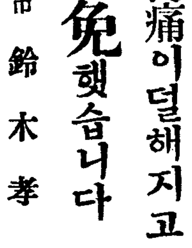
그런대 以前에는 腦溢血이 五六十歲의 老人에만라고하엿습니다。그러나 近來에는 三四十歲된이에게도 적지안코 五十歲의 한창일하기조흔 年齡에가장만타고합니다。

廿年前에는 全國의腦溢血死亡者는 六萬人에不過하엿스나 近年은 十二萬人으로 倍增되엿습니다。

一家나 一國家에잇서서도 第一活動的인年齡에잇는이가 死去하는것이므로 반드시此原因을排泄하지안흐면안됩니다 此病根『瘀血』을從來의 蛭과吸角에依한 瀉血法이나 破血劑라稱하는瀉下劑療法等으로는 幾分의副作用이따르는缺點잇슴을痛感하고 現代醫學을基礎로해서 再檢討한結果 體外로排泄해서血行을 調整하야 괴로워하는症狀을順次快癒케하는 新療法의創見에成功햇습니다。

本療法의詳細는 藥書로古醫學研究所로 申込하면 無代進呈하는『瘀血療法』의 一讀에依하시면 幸福일가합니다。

高血壓에서온 頭重 耳鳴에快效가잇서서
하와이 파파로아 高 木 タ 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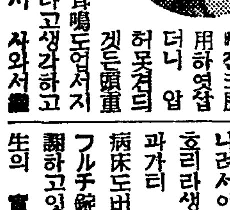


不意에어떤雜誌에서 貴所發賣의フルチ錠의 廣告를보고 곳服用하엿섯더니 점점效果가나타나서 血壓도 常態에가갑기까지나려서 上氣、眩暈、가적어지고 그리고 多年間 苦生하든 耳鳴에 快差가잇게되여 질거워하고잇슴니다。이대로나가면 健康體로 回復되리라고 熱心히 服用하고잇슴니다 또저와가튼病으로苦生하는이에게 꼭勸奬하고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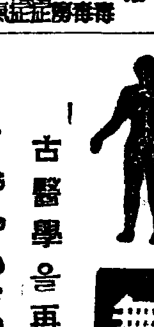
◇이와가티 多年間의 苦痛에서 快效를보게된분의 幸福을생각하면 아즉本療法을 모르는이에게 꼭勸해서 하로라도 빨리질거웁을엇도록하고저합니다。

頭重、耳鳴、肩臂痛이덜해지고 腦溢血을免햇습니다
布施市 鈴 木 孝 一

前略을容恕하십시요 저는 五十五歲에이르럿사온대 五六年前부터 血壓이아주노피 上氣、眩暈가잘나지고 頭重、耳鳴、肩臂痛으로苦生을격거왓습니다……



(前略) 그後每日 빼잔코服用하엿삽더니 압허오던 頭重도 개운해지고 耳鳴도 어서지기에 非常한效力가잇다고생각하고 다시近處의藥局에가서 사와서 續服用하엿습니다 今日에는大端히몸도조아지고 血壓도常態가갓게나려서 이만하면 腦溢血로되지안흐리라생각합니다。只今에는寫眞과가티 元氣잇게되여 多年間의病床도버서낫사온대 어것도全혀フルチ錠의 德澤이올시다하고 感謝하고잇슴니다 簡單하오나 小生의 實驗을 報告하는바임니다



古醫學을再檢討 (四六判美冊子)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면 곳介送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이러한症狀인분은 꼭一讀하라

▽頭重、耳鳴、肩臂痛、手足이저리는분(中氣、神經痛)

▽動悸、숨이가쁘고、眩暈、冷汗으로苦生하는분(心臟弱한분)

▽便秘症이잇고부으므로苦生하고 不眠症잇는분(梅毒、神經衰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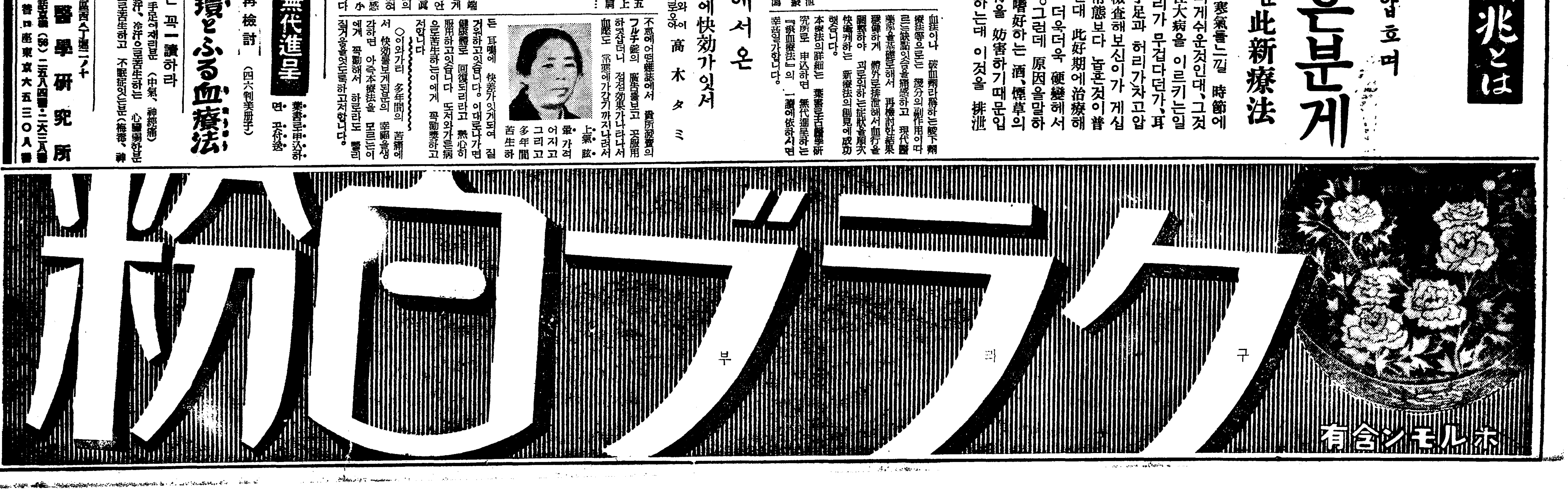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三八番 振替口座東京大五三〇八番

前東京吉原遊廓病院 小屋良明先生創製

排毒과 順血에 フルチ錠

十一日分 二十二日分 五十日分 (全國有名藥店에잇슴)

主效 高血壓、動脈硬化症、血壓亢進、中風、半身不隨、心悸亢進、甲狀腺病、貧血、喘息、リウマチ、神經痛、腦神經衰弱、ヒステリー、頭痛、常習便秘



中部版

水仁鐵道開通된후 縮小되는仁川商圈
大田과群山商人들이忠南北道에猛進出 仁川商議는그對策에腐心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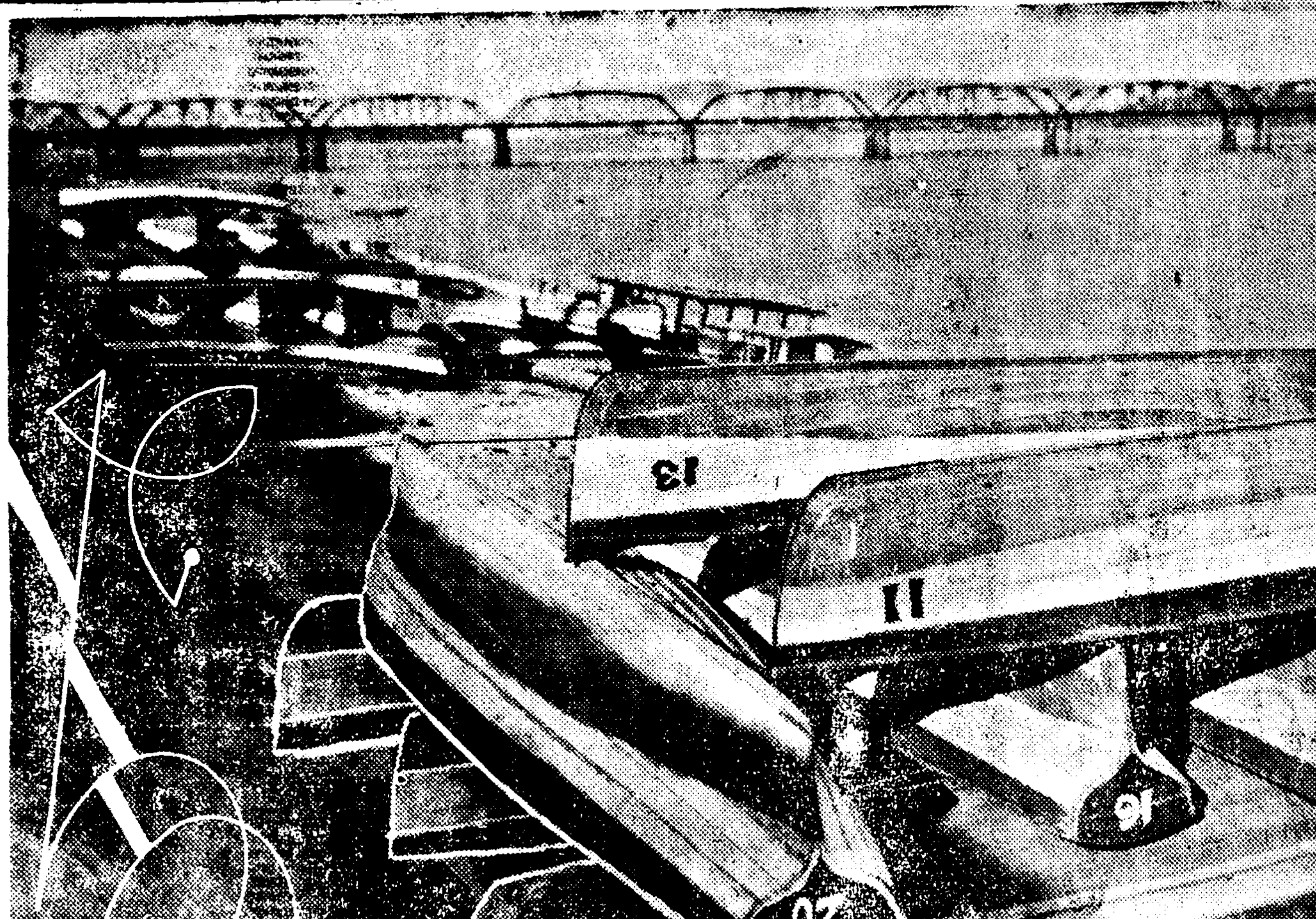
【仁川】인천의 상권은 충남북(忠南北)과 경기(京畿)북부일대에뻐치여잇는것이 이것이 의외에도수인(水仁)철도개통 이후에는점점축소 되는경향이 잇다는바이를 조사한바에 의하면이는 인천 상인은 십여년이상 피차예속의잇하야온 연고만을 의뢰하고 등한시하엿슴을 기회로 대전(大田) 군산(群山)등지의 상인이 극력진출하야 오는판계이라는바 이에대하야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상인을직접 인천상권지대에 항상 왕래를하고 또한연안무역을 위하야 선박(船舶) 업자등과 제휴하며 운임감하운동을 일으키여 인천의 상권을지키로 하얏다는바 그외에수인(水仁)선을 리용하야 산간무역을 또한개척할 계획이라한다

武運長久祈願

【伊川】강원도 이천군내에서는 면사무소재지마다 정신작흥제 일일인 지난칠일오전구시에 각 보통학교에 모히여 국체명징을 하는동시 황군을위하야 무운이 장구토록 기원제를 지내여서들 만여군민의 출정의 게상을다하고잇는데 이천군내에서는 오전구시에 이천공보교에서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코자 각교관민일동과 애국부인회 소방조청년단등으로 엄숙한가운데에 기원제를 거행하엿다는데 회집인원은 오백여명이라고한다

開城府公金橫領犯 甕津서逮捕押來
判明된千百三十圓以外에도 餘罪잇는가를追窮中

【開城】기부=개성부청 내무과 고원 유석종(劉錫鍾)(二○)은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기부금과적십자사(赤十字社)사원신입금 일천백삼십원의 공금을 횡령소비해가며 매일밤 화류게에 파무처 기생 김홍연(金紅蓮)(二○)(既報道紅은 紅蓮의誤植)과 더부러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다가 내종에는 당국과경찰에 이사실이 탄로되자 그들을 수습할수업는 그는 몃칠전에 어데론지 고비원주하고 말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소관개성서에서는 백방으로 수배진을 느리고 범인체포에 비상한활동을 거듭하드니 지난 칠일은 공일임에도 불구하고 남(南) 충천(沖田) 양형사는 무슨 단서를 잡엇는지 황해도 방면으로 급거 출장중이든바 동일밤 옹진군 마산면 오정리(甕津郡馬山面溫井里) 이모(李某)의 방에 나타나 그집에 잠복한 유석종을 무난히체포하야가지고 도라와 방금극비밀리에 여죄를 엄조중인데 전기 드러난 금액외에도 이백여원을 더소비햇다는 사실을 자백하얏다한다 그런데 이런유위의 청년이 전도를 망치는범죄를감행한원인을 보면 그배후에는 반다시게집의 유혹이 잇는것인바 이사실을 게기로 금후 개성서에서는 오락한화류게방면에도 철저히 단속하리라한다



보기만해도 쓸쓸한 船遊배 (漢江뚝의보ー트)

伊川에火災

【伊川】점차로치위가 닥처옴으로 강원도이천경찰서와 이천소방조에서는 만전을다하야 화재예방상 유감이업도록 특별한주의를환기하야 오던바 지난칠일밤일곱시경에 이천군이천면향교리(伊川面鄕校里)김재명(金在明)의집에서 돌연히 불이일어나서 일대소동을 이르킨바 이천소방조에서 출동하야 연소는업시꼿 진화되엿는데 일반은 겨울에특히 화재예방상 유감이업도록하기를바라며 손해와 출화의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仁川秋季射擊大會

【仁川】인천경찰서에서는 례년과가티 지난팔일동서사격장에서 거행한바 당일참가한인원 백이 ... 당일의 입상자는 다음과 갓다한다

一等 四〇點 橋本 郡長　二等 四〇點 井上 警長　三等 三九點 及川 ...　四等 三九點 武田 又義　五等 三七點 朴俊夏

精神作興週間에 結核病豫防宣傳
平康郡民運動會도開催

【平康】국민정신작흥주간에잇서 강원도의주최로 오는십일부터 삼일간 오는십삼일까지에 생명의위협을주엇든더러 매일가려 줄먹어드러가는 그무서운 결핵병에대하야 예방주간으로정하야 공전의대활동으로 민중에게 위생보급을식히고저 평강경찰서에서는 이예방데ー를 대선전하야 그결핵균을 근절코저 만반준비에대분망중이며 여러가지 선전보급에잇서 활동사진과 금년에 시국관계로 중지하엿든 시민운동회를 평강서의 후원으로 본보평강지국외 각신문사 평강지국의주최로 개최케되엿는데 운동회는 오는십삼일이라고한다 그리고 운동종목에잇서는 추후 발표케되리라하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선전방식으로 전민중에게 철저히 결핵병예방을보급코저 대활동중이라는데 근래에드믄 쾌사로 그효과에잇서기대하는바크다고한다

責任額에未達 淸州郵局預金高

【淸州】청주우편국(淸州郵便局)에서는 지난세계근검데ー(世界勤儉日)를 기회하야 국민이총동원하여 예금저축을한결과 일천구백 ... 금액은 ... 지난일년간의 ... 오일까지 십팔만원을 또다시증가시켜야할터로 지난칠월부터 오는이십오일까지 십일월간을 ... 동원하야 가정마다하고 예금권유를하게되엿다고한다

진달레꼿滿開!
山地伊川郡의奇現象

【伊川】립동도지나고 겨울준비를 하고잇는 이때에 진달래꼿치 피엿다 얼마전에 금작이나린 기온으로 이천군방장면원리(方丈面院里)방면에는 백설이분분하야 마치북국에갓는듯한 늣김을주고잇섯더니 작금에는 봄시도 따뜻하야 이천읍과 안협지방에는 양지쪽에는 진달래가피여잇고 진달래는 봉오리가커서 몃칠만더 고온이계속된다면 꼿구경군을 부르리만하게 되엿다는데 이와가티 립동절에 진달레가 피고 봉오리가 커젓다는것은 처음보는 일이라고한다

忠北各敎化團體에 國庫補助를申請

【淸州】충북도에서는 지난오일에 금년도사회교화시설에 잇서 각단체에 국고보조교부를신청하엿다는바 그단체명과 단체수는 다음과갓다

農村靑年團體九 婦人敎化團體六 地方改良團體三 鄕約團體二 聯合靑年會一 敎化團體聯合會一 體育團體一

鼻疽病徹底檢查
京城方面에發生됨에비춰 忠北各郡部에서도

【淸州】서울부근에서 지난시월이일이래 비조마(鼻疽馬)십일두가 발생하야 엄중경계중이라는바 이비조마는 다만서울방면만이아니라 작년사월 충북도청주읍에도 일두발생한실정에비추어그병독이 상당히잠재한것으로보이고 특히군사상 본역(本疫)의방알(防遏)은 중요한일이며 지금시국에잇서 이검색(檢索)은 게을니할수업슴으로 충북도위생과에서는 다음의일정으로 기술원을파견하야 말검사를 실시할터인데 청주(淸州)음성(陰城)영동(永同)군은 그군내경찰서의 위생기수가 적당한일시에 실행할터이라고한다

十八日報恩 十九日沃川 二十日伊院 二十二日忠州、萬升、二十三日鎭川 堤川 二十四日丹陽 曾坪 二十五日槐山

簡保健康相談所 淸州에設置要望

【淸州】경성(京城) 대전(大田)중간에잇는 충북청주(淸州)에도 간이생명보험건강상담소(簡易生命保險健康相談所)설치를 청주군민은 물론이려니와 그리접군민들도 요망한다는바 청주우편국(淸州郵便局)에서 취급한 보험가입자수가 일만인을 돌파하야 일만삼백명에 달하엿슴으로 이

金錢은親戚도無視
共同經營한土地의利益을 獨占한親戚거러告訴

【仁川】친척간공동으로 토지장사를하고 그리익을 독점하엿다하야 횡령의제소장 인천부대화정(仁川大和町) 리일남(李一男)은 그의친척되는태순(泰順)(余部假名)과한가지 토지영업을하든중 송도정(松島町)소재토지가 자기명의로되여잇든것을 기회로 그를매도하야 그리익이 만삼천여원을 독점하얏든바 전기로인은 리익금배당을 수차요구하엿스나 일체불응함으로 마친내 인천서에 배임횡령으로제소하야 방금엄중조사중이라는바 그진전이 가장 주목되는바이나 금전에는 친척도업다는 말세의 풍경의하나이라하야 적지안흔화제가되야잇다한다

米穀豐登에따라 田穀類도大豐作
豐年든開豐郡의集計

【開城】금년미작십팔만석을예상하는 개풍군(開豐郡)농민은 시화년풍의 가을을 노래하는이때 전작농민들도 풍년구가의 만세를고창하게되엿다 개풍군내중요 작물인 대두(大豆) 대소맥(大小麥)급 백속(白粟)등의 금년수확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첫재대소맥의금년실수확고는 사만륙천이백이십팔석(作付面積六四八五町)인바 이것을 작년수확에대비하면 칠천구백구십일석이란 실로 놀라운 증수를보엿스며 그다음 『백속』수확예상고는 이만삼천이백구십구석(作付面積四一六四町)으로 작년과대비컨대 일천이백오십칠석이 증가될것이라하며 『대두』는 이만이천오백팔십륙석으로 이것을 도작년수확고와 비하면 오천일백오십칠석의 증수를 보이리라는데 전기삼대석을 합하면 실로 구만이천일백십삼석에 달한다

烏山安城間道路 今年內로全通

【烏山】소화구년도에 오산(烏山)안성(安城)간도로개설기성회가조직되여 소화십년도부터 기공하야 안성으로부터 양성면(陽城面)원곡면(元谷面)남사면(南四面)구역은 완성되엿고 성호면(城湖面)은진위북면(振威北面)경게까지준공되엿스나 북면서는사정으로인하야 아직착공못하엿스므로금월륙일오산에서본면장주선하에 각관게당국급유지가모여협의를한결과 금월중순부터미착지인북면구역도 착공하야금년에 오산안성간도로가 전통되리라고한다

一時는生活도困難 蘇生하는紅燈街
仁川에미친事變影響

【仁川】지나사변은 맛츰내 그 밋치는바 영향이 한두곳에 끗치지안코 미곡잡화 각게에가장 큰영향을 주고잇는바 그중에도 금융경색은 당어지를심하게도 울니워주고 잇슬뿐아니라 이에따라 부대로 좌우되는홍등가(紅燈街)에대한 경기를보면 일류에잇서서는 약오할감의현상이며 이류와삼류는 침체일중에는 약사오활의 감소를보혓스나 사변도 다소 안심을갓게한관게인지 구월부터 다소회복되야 생활난까지당하든 그들에게도 새로운호숨을갓게하엿다는바 칠월이후의 홍등가에대한 통게는다음과갓다한다

仁川料理屋賣上高

	十一年	十二年
七月	一四、六六九圓	二一、六九一圓
八月	二一、六六五圓	一六、八四四圓
九月	三一、四七〇圓	一七、一三三圓

强盜主犯은逮捕
共犯逮捕도時間問題 淸州郡賢都面覆面强盜續報

【淸州】기보=지난오일 오전두시경 청주군현도면 죽전리(賢都面竹田里) 망어권유옥(權允玉)씨집에 이인조 복면곤봉강도가침입하야 곤봉으로 협박한후 돈을 강요하엿스나 『도적이야』하고소동함으로 한푼의소득도업시 도망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급보를접한 그면주재소에서는 청주서의 후원을어더 비상경게망을배풀고 범인수사중 가장유력한혐의자인 충남아산군음봉면 신정리(忠南牙山郡陰峰面新井里) 리덕룡(李德龍)(三六)을 인치심문한결과 지난칠일에 자백하엿다는바 그는그곳가망부로잇스면서 전기 권유옥이가 이천오백원을밧는것을 목격하고 현재어대로인지 도망한모(某)와 공모하엿다는데 범죄사실을 자백하엿다는데 그공모자도 각처에 지명수배중임으로 멀지안허 체포하리라고한다

木浦圖書館業績
半年利用者萬名

【木浦】목포도서관(木浦圖書館)에서는 일반부민의 도서열과취미를 함양식키며 또는도서관외 리용방침을 협의하기위하야 지난 유가종교가를 초청하야 좌담회를 개최하엿는바잇섯는데 금년사월부터 구월까지 약 도서관리용자수를보면 구천륙백구십삼인이엿는데 금년칠월이래 유료(有料)제가 되면서부터는(一般二錢學生一錢)종래삼분지일이감소되엿다고한다

七十老人 結項自殺

【蔚珍】일흔데살먹은 로인이 버끈으로목을매고 자살하엿다 울진면고성리(蔚珍面古城里)에 사는 조공진(曹公珍)(七○)이라는로인은 본시빈한한 생활을하다가 삼십세때에 상처한이래 더욱생활이 곤난하야저서 엿장사로근근연명하야 오던중병까지 생겨 세상을 비관하든끄테 지난오일 오전 세시에 자기집울타리뒤에 잇는바드나무가지에 벼끈으로목을매여 죽엇다

狂犬(?)에게咬傷

팔일밤 여섯시반경 부내동숭정(東崇町)이백일번지의 십구호 김중현(金重鉉)의집개가 련지정(蓮池町) 백칠십구번지 김영환(金英煥)(七)의 왼다리를 무러 상처를 입혓슴으로 소관동대문서에서는광견(狂犬)이아닌가하야 경찰부수의(獸醫)의 진단을청하얏다

花冠 (98)
三長篇小說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새정렬(三)

동옥은 이날은 더 인봉이와 문병하지 안코 이렇이도 드러오기 전에 집으로 나려오고말앗다。 집에는 동석오빠에게서 옷감이 한벌 와 잇섯다。 그의혼인날 두루마기를 서달라는것으로 그날 입고 오라는 선물이엿다。 눈물가리 히고 고흔 모재처럼 손새에서 미끄러저 빠지는 비단이다。 사람의 옷감이란것보다 행복을 싸는 보재기처럼 현란하게 느껴진다。 어머니더러 말러달래서 꼬박걸 올케와 마조안저서 짓기를 시작하엿다。 그러나 동옥은 그런 비단의감촉과는 정반대인 인봉이네집생각을 하고는 몃번이나 바늘에 손끄틀 찔리엇다 면번이나 바누질감을 노코 시계를 처다보앗다。 어떤때는 오전 열시나열한시、어떤때는 오후 일곱시나 여덟시、오전에는 점심이나 먹고 가볼가 하고 벼르다가 열을 한가지라도 마치는 재미에 놀려안저버리엿고、저녁에는 옹ー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가기는 가더라도 돌아올때 경복궁의 긴ー담밋치 호젓할 생각을 하고는 그만 내일 아침에나 가리라 베르고 말앗다。 그러나 베르고말기만하는것은이런 이유만은 아니엿다。그보다는 인봉에게 어떠한 태도로권해야할지 그것을결정하기어려워서엿다。그리다가 바누질이끗나는날오후이다 동옥은 어머니한테로 갓다。인철의 이야기는 감초고 인봉의 딱한 사정만 그럴듯이 연락을지어 여쭈엇다。

『내년 양력삼월까지만 잇스면 돼요』

『그뒤?』

『그뒤 본과에서부텀은 누가 대주마는 사람이 잇대요』

『글세… 너이 아버지께 여쭤바야… 기집애가 미친 안러라만…』

『월 얼마가 맘대루 하시면 되지 뭐 아버지헌테 누가또말허우』

『내 말해주맛구나』

『그럼 내 오늘 가 물어보구오께 ?또 어떠케 될지 몰으니까 아버지껜 나중 말슴드려요』

하고、옷은 대려논것은 올케에게 멕기고 저녁때인데 나와버리엇다。

또 인봉의만 혼자 잇섯다。 인봉은 중병을 겪고난 사람처럼 파리해젓다。저녁을 해서오빠와 겸상을 채려다노코 바굴바글 끌흔 찌개그릇을 드려다보면서 오빠를 기다리고 잇섯다。

『그간 무슨 소식잇서서?』

『연락안으로 다시한번 검사가 취조햇대나요 그래 그날짤을 변호사가 알아오다구해서 변호사한테 가섯세요』

『날짤 아시면?』

『아마 나서야된다나봐요』

『인봉인 어떠케할 작정해서?』

『………』

인봉은 잠잠코만다。

『인봉이?』

『………』

『날 동요루 믿나 안 믿나?』

『그럼……』

『언제 언날 안 믿는댓서요?』

하고 동옥은 인봉의 손을잡는다。손등이 몹시 거칠어젓다。

『인봉이 생각에 나도 감정만으로는 동감이야…인봉에게어떠케 중한 오라버니란것도나도 알어…도사실대로 말하면 인봉이만치 나도 인철씨를에끼구시퍼…이건 인봉이가 내의견을 미드라구 고백하는거야…나두인철씨가 될수잇는대루 고생안하다 무사하게 나오시기를 바라는 맘은…알겟서?』

인봉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건 이ー어……알어…오빠한테 그런말 널 필온 업서…패니 뒤숭숭만 하시게될거니까 그런데 인봉인 내말대루 할려야?』

『어떠케요?』

『오빠가 돼서 생각해보란말야 인봉의 장래를 끄처서까지자기가 편히 지내고 십겟나? 편하다고 그게 편한걸로 되겟나? 더 마음이 괴로울것 안야?』

『………』

『그속에선 모른다처、그래도나와、아시는날은 평생두고 괴로우실것 안야? 왜 자기전정을 버리면서까지 그런 긴 고통을 끼처 드릴려구그래? 안 그래?』

『………』

『말해봐? 좀더 오빠 집접게해드릴수 잇는 인봉이 안야?』

『어떠케요?』

『우선 공불 계속해야지 오빠가 이담에 정말 조흔일을 하실때 그때 도아드릴수 잇는 일꾼의 자격을 준비해야지? 안 그래? 또 만일、천만뜻박게말야 오빠가 불행하게된다치더라도 정말오빨 위로하려면 오빠가 하려던 일을대신 해드려야될것 안야? 그런 준비루 나가야 올치안혀?』

『………』

『어디 아니라구 해봐?』하고 동옥은 옹홈인지 울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인봉의 억개를 꼭 끄러안고 빰을 부빈다。

◎이廣告를 普通廣告로 보시지마시고 꼭보시며색이시요

◉胃腸良藥突現!

胃腸特効藥 內用電氣 卽治水

藥價 四圓 四十日分 貳圓 十八日分 壹圓 八日分

帝國政府專賣特許局登錄認可까지 所有한 胃腸藥界에서 於焉 十餘年間이란 長久한歲月을 保持한 此卽治水란藥은 效力이 絶等하여도 여러類似藥에 欺瞞되여서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 苦生하신분이 非一非再인故로 眞實한藥效를 모르시는분이 만슴니다 그러나 胃腸病으로 呻吟하시다가 卽治水를 先服하신분은 참으로 胃腸病特効藥의 發現을 讚頌하실것이고 卽治水란藥을 이제야廣告하게되나하시고 後悔도나실것임니다 本舖인 漢城藥館에서도 벌서부터 광고를하여서 卽治水를알녀며 新聞이나 雜誌에다가 작고광고를 내여서 胃腸病으로 苦生하신분을 만히곳치엿슴니다 卽治水가 효력이업스면 광고를하겟스며 지금은 廣告를 하기도 어렵슴니다

◎卽治水의原料內容 (卽治水는엇더한藥인가)

卽治水는 原料가純漢藥으로된 여러가지藥을 採取하여다가 잘씻니고 淸水에다 淸潔하게 씻처서 機械로 기름을내인 純漢藥으로 朝鮮사람이 맵고 짜게먹는 胃腸에는 참으로 잘맛는 약이올시다

◎卽治水는 엇더한병에 쓰느냐하면 左記와갓흔 胃腸病에 藥効가 卓越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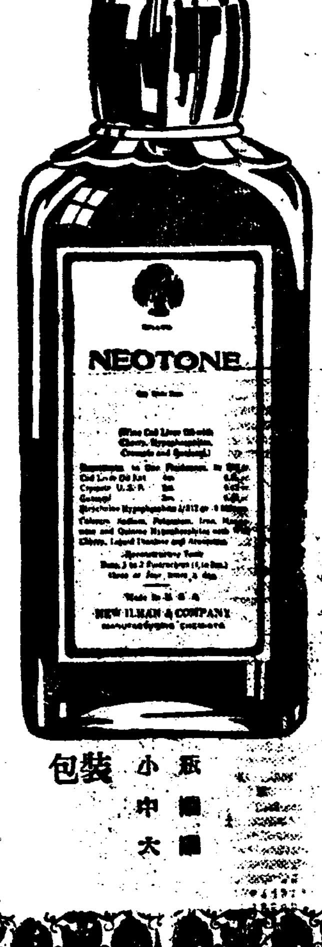
오래된속병、체하여서배알흔대、미루체로인하야 각금설사하는대、체하여서 설사하는대、아래배알흔대、위장이 약하여서 구미가업는대、담으로 속알흔대、가심아리、소화안되고 음식만먹어도 속알흔대、여름에 체잇는대、토사곽난등에 먹으면 아모리 오래된속병이라도 卽治水를 먹은지 몃시간이 못되여서 속이시원하며 약효가칠으로 신기하게납니다 즉치수(卽治水)가 이런 약효(藥効)가 잇스니까 속병으로 고생(苦生)하시는분은 복약(服藥)하시면 참으로 약효(藥効)를 어실것이오니 좌기본포(左記本舖)로 注文하시요

京城府樂園町二〇九番地 漢城藥館本店

●少年、十一月號發賣中●

呼吸器疾患·結核豫防에네오톤

PROTECT YOUR RESPIRATORY ORGANS WITH NEOTONE!



只今으로부터 冬寒期에亘한 모든 疾病은 大槪 呼吸器病으로부터 始作되여 甚하게되면 肺炎、結核等의 重症으로 惡化됩니다。

그것은 體內에 비타민蓄積量이 減少됨을따러 身體의 抵抗力이 減弱되고 特히 呼吸器粘膜이 弱하게되여 感冒菌과 結核菌이 侵犯한까닭입니다。

그럼으로 向寒期의 只今에 呼吸器를 充分히 補强하는同時에 身體의 抵抗力을 强化하여 嚴寒에 備하지안으면 안이됩니다。

世界的强壯劑네오톤 은 體內에 榮養을 供給하여 抵抗力과 抗病力을 强化하는 同時에 結核菌을 殺滅하는 有效成分 크레오소ー트 구아야콜等이 適當히 含有 되엿슴으로 呼吸器疾患과 結核豫防에 特히 推奬된 世界的 强壯劑입니다。

(本劑를 服用하실때는 먼저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産褥·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包裝 小瓶 中瓶 大瓶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滋强飲料 食後에 間食에 カルピス

催眠術獨習 演說法大方 中國語獨學 人間萬歲曆 巡査受驗書 ... 東洋大學堂

淋疾 排菌早期療法 ゴノラミン ... 發賣元 京城府本町 阿部藥房 製造元 大阪 ゴノラミン製藥所

外務社員招聘 ... 朝報案內 朝鮮日報社

東洋劇場 ... 「新舊衝突」 ... 「愛怨十字路」 ... 『그늘에우는天使』 ...

人類一億年의曝露 ... 支那事變뉴ー스 ... 優美館 電光二三九五

樂園の合唱 ... 新富座

軍事占領뒤에 따라오는問題

治安恢復과經濟活動

軍事占領 그뒤에 따라오는 問題는 治安의問題, 治安의回復又는그改善 如何에따라 經濟活動은 開始되는것이다 누구나 못는다 그後의 治安狀態는 어떠냐고? 天津, 北京은 어떠냐고? 北支의 心臟地帶인 兩大都市는 軍의 權威한 指揮下에 治安維持會等이 그局面을 當하는동안 最初는 市街地도 除夜는 往來하야하고 市外의 交通은 極히 警戒를要하다고 불여젓스나 그後엔 그러한 念慮는 거이 一掃되엿다. 도한 商習에 밝고, 戰亂에도 만히 訓練된 支那商民이라 生活의 安定을爲하야 各自 그들은 平穩한常態에 돌아가고서 에應하야 全般的으로 安定되어잇다 記者가 目睹한바로도 그間復의 度는 놀랄만큼이다 九月下旬에 波及하야 月經에到着하야 ……

治安을 維持하가지고 잇섯슴을 예를수잇섯다 交通도 天津, 北平間의 北寧鐵道도 出札과 運轉이 나로 正常化하야 國際觀光局으로서의 面目을 가추기에 바엇섯다 第二時間四十分에 通하든것이 一時는 十餘時間을 要하든것이 近者에는 六時間에 이르러 漸次로 回復되어가고잇스며 ……

다 그러고 貨幣의 一問題에 關하야 北支의 金融은 支那側 紙幣의 流通이 어떠케되어가는가 經濟活動의 結果를 끼어야하고 …… 月下旬까지 地帶에서 石家莊까지 三日乃至四日間을 要하든것이 約一週日間부터 不過十六時間에 通하게 되엿다고하니 그間 交通, 通信網의 整備에따라 治安의 恢復도 實로 活目할것이 잇스리라고 잇는다

◇

이러한 交通, 通信網의 整備는 治安의回復은 勿論이나 이러한 가운데 流通으로서 重大한現象이 잇을것이다 이것이 時日이 解決할問題이기는하나 크게 注目을 끄는 諸問題로서 通貨問題가 잇다. 金票(圓貨)對 銀票(國幣)의 差이다. 即 爲替의問題이요. 크게는 北支에 對한 今後의 金融業者에 關한 問題가 되는것이다 이에 對해서 注目되는 것이나 大略 天津의 事情을 紹介키로한다. 北支經濟의 中心地인 天津에서 流通되는 銀行券의 紙幣發行高를 보면 今年 四月末現在가

◆支那側

中央	三〇、一二四千元
中國	一〇八、七六三
交通	五七、七五〇
河北省	五〇、〇〇〇
其他	—
合計	二五五、一〇七

로 前記四銀行이 高額을 占하고 外에 三百萬元의 流通額을 가진 北洋以下四行, 中國實業 中國農業, 中國墾業 浙江興業 大中, 邊業等 合十二個銀行의 紙幣가 잇고 그外에 外商의것에

麥加利(英)	三五〇千元
匯豐(英)	二〇〇
花旗(米)	一〇〇
朝鮮(北白)	八〇〇
正金(日)	一、四三〇
合計	[illegible]

等이 잇다 그러고 그우에 日本銀行券과 朝鮮銀行券이 若干量이 잇섯는데 今次事變後 朝鮮銀行券이 相當數量으로 流布되고잇다

◇

이와가튼 複雜한 貨幣의 紙幣가 流通되고잇는가운데 以上 列記한 諸銀行券으로다 銀票로서 國幣와 同價로 通用되는 것이나 日銀券 朝銀券은 金票로서 그市勢의 差가잇다 天津外國爲替市場을 보건대 昭和十年十月 支那의 幣制改革時 國幣一元에 對하야 英貨一志二片半이든것이 一志二片半으로 約二割切下하야 이를 公定市勢로한後 大體에 잇서서 日本國貨는 其變動이 어덧다 時에 國幣百元에 對하야 百三十圓이든것이 百四圓으로 되어 若干의 變動은 잇섯스나 大體 保合이엇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日貨는 百圓에 對하야 九十六元七十仙되든것이 이런關係가 事變發生後 一時는 八十八元에까지 低落되엇든것이 그後 漸次 回復하야 最近은 上海의 戰局이 一轉하야 九十六圓을 突破하엿다고한다. 이로써 日本租界內에서만은 겨우 朝鮮券이 銀券『파』로 取引되는다고한다. 通貨銀券(所謂『돈』)이라고하야 예씨로, 외銀入以後 그影響을 바다 大洋을 奉이라고 表하야다 對金券(朝鮮券)에 對한 關係는 微妙하다 그評價와 動向은 北支金融問題를 考察함에도 重要한 材料가 되는 것이다 今後 觀測等은 여기에 略하고 于先 記者가 본바의 事情의 一端만을 紹介코저한다(계속)

產組健實化企圖

委託販賣를獎勵하고 買取販賣는極力警戒

農林局에서는 朝鮮의 產業組合事業의 堅實한 發展을 하게하기爲하야 助成策을 考慮하고잇는데 元來 產業組合의 事業은 委託販賣를 理想으로함에 不拘코 農村의 實情으로 買取販賣를 認하게되어 此間 多少의 弊害가 업지안흠으로 現在의 農村經濟界의 情勢와 時局에 鑑하야 此際 組合事業에 對하야서도 一層 販賣方針을 取케할 必要가잇다하야 總督府는 各道知事에게 對하야 組合의 委託販賣를 獎勵하고 買取販賣와 投機的 買賣를 極力 警戒하야 經費를 節約하고 收支의 均衡을 圖하야 一層 堅實한 發達을 하도록 通牒을 發하얏다한다

全南明礬石原料 朝窒알미製造 本宮에工場建設

目下 古乾炭鑛에서는 年十萬噸의 採掘을 行하고잇다

朝鮮窒素系의 알미製鍊事業은 赴戰江發電以來의 懸案으로 慎重히 하고잇는데 電氣製鍊의 確信을 得하얏슴으로 約一千五百萬圓의 資本을 投하야 本宮工場에 알미工場 建設에 着手하고 目下 工事를 進行中이다 同社의 製造는 全南의 明礬石을 原料로하는 것으로 이미 全南에서는 鑛區買收를 終了하고 探鑛에 着手하고잇다 最初의 計劃으로서는 金屬알미 年產 一萬톤을 生產할 目標이오 明夏 事業開始의 豫定이다 그製品은 軍需法과도 달리서 朝鮮獨特의것으로 採算的으로도 確信을 得한모양이다 朝鮮產 明礬石原料로는 日本電工의 事業縮少로 悲觀論이 有한 이때 朝窒의 이進出은 注目된다

鑛山開發에 東拓積極進出

東拓의 朝鮮內 鑛山에 對한 投資와 融資는 傍系 東拓鑛業으로하야금 그經營과 投資에 當케하는 同時에 金融關係는 東拓自體가 이에 當하야 相互 協力하야 最近 活躍이 顯著케되엿다. 東拓鑛業은 永興, 斗升, 恩津等의 直營金山 通川炭鑛, 金鉱金山會社를 傍系로하고 最近은 北支에 進出하야 長城炭鑛을 經營하는等 諸鑛山에 鑛足을 伸코잇는 一方 東拓自體는 現在 四百萬圓에 達하는 鑛山融資를 行하고잇고 그範圍도 金山 炭山과 其他 특수한等의 特殊鑛石에도 及하는바에 傍系會社로서 中川鑛業(重晶石) 會文炭鑛(炭山)을 그傘下에 集코잇다 今回에도 從來 融資關係로서 咸北古乾源炭을 引受하야 東拓鑛業으로하야금 經營에 當케하며 江原道의 女美山(亞鉛鑛)을 中心으로서 朝鮮亞鉛鑛業會社(資本金百萬圓)를 設立하야 傍系會社로하기로되엿바 東拓資本에 依한 朝鮮의 鑛業開發은 最近 顯著하야 關係方面에서 注目되고잇다

東拓古乾源炭引取

東拓의 融資關係에 잇는 咸北 古乾源炭鑛(故濱生喜波氏所有)은 赤司氏가 經營할 豫定이엇스나 赤司氏는 이것을 履行치 안음으로 東拓은 債權關係의 意味로 이것을 引受하고 東拓鑛業으로하야곰 이에 當케하기로 되엇다 有望視된다한다

東拓下期業績 前期와無大差

東拓의 下期業績은 農業關係가 未曾有의 米豐作임으로 그小作料收入이 上下兩期에 折半되어도 米價高 其他의 環境好調로 前期보다 相當한 增收가 豫想되는 一方 朝鮮內의 金融關係는 下期에 入하야 以來 金融情勢의 逼迫으로 不動產貸付를 비롯하야 多少 梗塞되엿슴으로 金融關係의 收益은 減少를 免치못하야 結局 投資會社關係의 收益은 前期와 大差가 업고 增配는 期待되지안어 五分据置로 되리라한다

朝鮮亞鉛鑛業 東拓出資로設立

東拓은 故 濱生喜波氏所有의 江原道 女美山鑛山(金銀亞鉛)에 對하야 今回 出資하고 資本金百萬圓의 朝鮮亞鉛鑛業會社(假稱)를 設立하고저 過般來 佐藤金融課長이 渡東하야 本社와 協議中이든바 大體 本社首腦部의 承認을 得하얏스나 資金調整法의 關係로 關係當局과 目下 折衝中인바 認可가 잇는대로 會社를 設立할 方針이다 亞鉛鑛은 我國 全國的으로 不足한 此際 이事業은 ……

鮮銀歲末需資 大膨脹豫想

一億二千萬圓突破?

今夏以來 朝鮮內의 主要需資는 鮮銀에 殺到되어 鮮銀本店을 一應케하고잇는데 資金調整의 實施以來 鮮銀에서는 이基準에 照하야 貸出을 行하나 그需資는 增大一途로서 十月末에 八千萬圓을 突破하얏다 十一月부터 歲末에 亘한 資金豫約 其他도 例年에 比하야 膨脹되엇다 例年의 鮮銀歲末貸出은 四千萬圓前後로 前年 六千萬圓에 達하얏섯든것이 本年은 確實히 그倍額인 一億二千萬圓突破가 必至로 보이는 狀勢이다 鮮銀에서는 朝鮮內의 金融狀勢도 考慮하야 需資에 對하야 될수잇는대로 放出할 方針이라한다

海州에製鍊所 中外鑛業에認可

朝鮮內의 金製鍊所는 鎭南浦(日本鑛業) 長項(朝鮮製鍊) 興南(朝鮮鑛業開發) 文坪(住友)의 四個所인데 今回 中外鑛業會社(社長 原安三郎)가 海州에 設置할것을 八日附로 認可되엇다 同社는 資本金 四百六十五萬 全額拂込으로 乾式法에 依한 百五十噸爐 一基로써 明年秋까지에는 操業을 開始하리라한다

江界水電開發 短期完成至難說

江界水電開發(出力二十二萬키로) 東拓系은 一部에 資金調整에 抵觸說等이 流布되나 最近은 技術的으로 短期完成至難說이 잇서 悲觀的色彩가 濃厚하다 江界水力의 發電豫定地點의 隧道工事豫定地가 朝窒의 長津江水電等과 달리 相當히 標高가 놉흔 山岳으로되는 關係로 이에 隧道工事를 施行할 時는 堅坑의 開鑿이 一千尺가까이되고 從하야 難工事로될 로 아모리 順調로되어도 이隧道工事는 ……

米棉未曾有大豐

一千八百萬俵突破發表

【紐育八日發商通】亞米利加農務省은 十一月一日 調查의 新棉收穫豫想을 如左히 發表하얏다

米利新棉豫想은 有史以來의 最高記錄으로 一九二六年의 一七、九七三〇〇〇俵를 凌駕하고 一千八百萬俵를 突破하얏다 米棉史上 未曾有의 大豐作이다

收穫豫想高

一千八百二十四萬三千俵

(一에1카1當二五八封度入)

今回의 政府公報는 民間豫想의 一七四九〇〇〇俵보다 七五三〇〇〇俵 增加이다

繰上高

一千三百十六萬四千俵

【紐育八日發商通】本日發表된定 ……

米穀買換要綱

一、賣却及買入豫定數量

(一)賣却豫定數量 內地米約五十萬石

(二)買入豫定數量 今回의 賣却數量에 該當하는 米穀統制法施行令第十四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야 昭和十二年八月乃至十月의 間에 잇서 賣却한것을 合하야 約百萬石으로함

賣却事務所別 賣却豫定數量은 追後廣告함

買入豫定數量은 各買入事務所에 共通하는것으로함

二、賣却及買入의時期

(一)買入의時期

保證金의受付 昭和十二年十一月十五日

申込의受付 昭和十二年十一月十六日

買入의決定 昭和十二年十一月十七日

三、賣却及買入의事務所

受渡場所(左記各地의 政府指定倉庫)

京城米穀事務所 仁川 鎭南浦 元山

京城米穀事務所 釜山出張所 釜山

京城米穀事務所 群山出張所 群山、江景、木浦、麗水

四、賣却米及買入米의種類

(米)買入米의種類

朝鮮所在의 買入事務所에서 買入하는것은 朝鮮總督府穀物檢查所의 檢查에 合格한 昭和十二年產 叺入 朝鮮水稻粳玄米及正租로서 追後告示할 政府買入米格差表에 格差의 記載가잇는 銘柄記號等에 該當하고 또 이에 相當하는 品位를 有하는것으로함

五、賣却及買入의方法

(一)買入의方法 入札의形式에 依하야 政府의 買入豫定價格以下의 申込에 對하야 最低의 價格의 申込부터 順次配當하야 買入豫定數量에 達하기까지 買入하는것으로함

六、賣却及買入의一口의 申込數量

(一)買入의 一口의 申込數量 朝鮮米는 玄米에 잇서서는 同一銘柄記號百叺以上(受渡米는 同一粒種等級二十叺을 下함을 不得함) 正租에 잇서서는 同一銘柄二百叺以上(受渡米는 同一粒種等級四十叺을 下함을 不得함)으로함

七、賣却及買入의保證金

(二) 買入의保證金 朝鮮米는 玄米에 잇서서는 一叺에 對하야 金一圓以上 正租에 잇서서는 一叺에 對하야 金五十錢以上으로함

八、受渡期間

買入에 對하야서는 其決定의 翌日부터 三十日間으로함

朝鮮米賣渡要綱

一、賣渡의 申込을 하려는 者는 賣渡申込書를 當該買入事務所에 提出할것

二、賣渡申込을 하려는 者는 玄米에 잇서서는 一叺에 對하야 金一圓以上 正租에 잇서서는 一叺에 對하야 金五十錢以上의 申込保證金을 現金又는 無記名邦貨國債證券으로써 納付할것

三、一口의 賣渡申込數量은 玄米에 잇서서는 同一銘柄記號百叺(九十斤入)以上 正租에 잇서서는 同一銘柄二百叺以上으로함

四、賣渡申込價格은 告示로써 定하는 格差表에 ◎印으로써 示한 等級一叺當(正租에 잇서서는 九十斤入)의 價格으로할것

五、買入의 決定은 左의 方法에 依하는것으로함

豫定價格以下의 申込中 最低의 價格의 申込부터 買入豫定數量에 차기까지 順次決定함 此境遇에 잇서 最後에 至하야 二以上의 同一價格의 申込이 잇는때는 政府에서 抽籤에 依하야 이를 決定함 最後에 決定된것의 其決定數量이 申込數量에 차지안는일이 잇슬지라도 異議를 申立함을 不得함

六、政府買入을 決定한때는 申込者에 對하야 買入決定書를 交付함

七、買入決定書의 交付를 受한 者는 遲滯업시 請書를 提出할것

八、現品受渡의 場所는 鎭南浦 元山、仁川、群山、江景、木浦 麗水、釜山의 各地에 잇서서의 政府指定의 倉庫로함

九、現品의 受渡期限은 昭和十二年十二月十七日까지로함

十、受渡米는 左의 要件을 具備함을 要함

(가) 朝鮮總督府穀物檢查所의 檢查에 合格한 昭和十二年產 叺入(正租에 잇서서는 九十斤入) 朝鮮水稻粳玄米 又는 正租로서 追後告示하는 格差表에 格差의 記載가잇는 銘柄記號等級에 該當하고 또 이에 相當하는 品位를 가질것

(나) 變質米, 虫害米, 濡米, 其他의 事故米 又는 斷叺이 아닐것

十一、受渡米는 一口及受渡場所마다 同一粒種等級(格差表의 附記에 依하야 格差가 다른것은 別等級으로 看做함)의 玄米에 잇서서는 二十叺以上 正租에 잇서서는 四十叺以上일것을 要함

但 政府에서 特別한 事由가 잇다고 認하는 境遇는 此限에 不在함

十二、同一銘柄等級에 對하야 格差表의 附記에 依하야 格差가 다른 境遇에 잇서서 이를 表示치 아니하야 不明한 受渡米에 對하야서는 其買入價格은 同一銘柄等級中 最低格의 것으로 看做함

十三、賣主는 受渡米를 政府指定의 倉庫에 入庫한때는 倉入通知書를 當該買入事務所에 提出하야 檢查를 求할것

十四、受渡米의 數量에 對하야서 契約數量의 百分의五以內의 增減은 認하는일이 잇슴

十五、政府는 受渡米의 百分의五以上에 對하야 檢查를 行함 前項의 檢查에 對하야서는 異議를 申立함을 不得함 第一項의 檢查의 費用은 政府의 負擔으로함

十六、檢查에 合格한 受渡米에 對하야서는 政府는 賣主에게 對하야 檢查合格證을 交付함

十七、賣主는 受渡米의 倉庫搬入에 際하야 檢查에 合格치 안흔것에 對하야서는 受渡期限까지에 代米의 提供을 시킬 수 잇슴

十八、政府指定의 倉庫에 入庫한 受渡米의 保管料는 賣主의 負擔으로함

十九、政府는 賣主의 請求에 依하야 受渡米의 保管證明에 關한 倉庫證券의 交付를 함

二十、買入米의 代價는 申込價格에 格差表에 示한 格差를 加減하야 이를 計算하고 米穀需給調節特別會計法及米穀證券發行規程의 規定에 依하야 昭和十三年四月一日에 償還할 米穀證券(利子를 附치안홈)으로써 이를 支拂함

二十一、賣主의 責에 歸할 事由에 因하야 受渡期限까지에 受渡를 完了치 못할때는 遲延日數一日에 對하야 玄米에 잇서서는 一叺에 金二錢、正租에 잇서서는 一叺(九十斤入) 金一錢의 比例로써 違約金을 徵收함

賣主의 責에 歸할 事由에 因하야 申込을 取消하고 又는 契約을 解除한때는 申込保證金 又는 契約保證金은 政府의 所得으로함

但 一部履行을 認한 境遇에 잇서서는 請書에 記載한 數量에 對한 不足部分에 該當하야 이를 政府의 所得으로함

第二項은 政府에서 特別한 事由가 잇다고 認하는것에 對하야서는 이를 適用치안흠

二十二、本心得書의 …… 에 違反하야 不當한 申込을 하얏다고 認할때는 申込保證金 又는 契約保證金은 政府의 所得으로하고 契約을 解除하는일이 잇슴

魚油運賃三割引上

魚油運賃은 八日에 營業하야 九日도 水產會館에서 油脂聯 日本油脂對朝鮮郵船間에 協議가 續行되는 되는인데 大體 八日의 協議會에서 現行보다 三割引上을 決定한 모양이다

颱風一過

昂騰後의 急反落으로 昨日의 大波瀾을 惹起하엿스나 今朝에는 人氣다시 平靜에 回復하야 市勢는 다시 底固하게 反戾氣味를 보이게 되엇는데 이것이 下落途中의 一時인지 또는 이로써 下落一巡, 反戾될 市勢인지 今明日의 前向은 極히 注目되는바 左右間 三四日을 두고 買進한 市勢를 一氣에 賣叩한 低落케하고보니 그만큼 크다고 解惑되다하드라도 度를 지나치면 도로혀 餘力이 不足하야 買方의 逆襲이다 危險케되는 것이라 今日의 反戾는 奇異할바 업스나 今日의 新步調로서 市勢의 實轉을 證明할수잇는 代身에 今日의 反反落도 昨日의 適度한 反動落의 再反動을 意味하는 것으로써 이에 繼續하야 反高를 보이는 때에 一時的 反動落이 끈치고 이것이 押目底가 되어 다시 反高狀이 될도 모르는것이니 勝勢도 한 一氣上伸을 不許한다고하나 順順한 下落은 不許할것이오 이로써 市勢는 다시 波瀾保合으로 들어가는것으로 解釋할수바게 업슬것이다.

後場反戾

後場은 少高裡에 寄付後, 太原陷落, 上海戰況 在滬의 報導入하야 東新은 百五十圓大臺를 回復하는等 反戾少高이엇다

低落도一巡?

昨日의 下落으로 東新은 戾高價에서 五圓棒을 내려갓게되엇는데 東新五圓押은 百四十圓〇二로부터 百五十三圓九까지의 騰幅의 四割 二十七圓의 三割五分餘인데 東新이 百二十七圓의 大底를 보인後 그後 騰幅과 押目의 比例的 反動을 調査해보면 押目도 그範圍에서 벗어난것이 아니다 이런意味에서 그後 上騰을 보일때에는 市勢는 强化되는것이라고 할수잇는 것만은 …… 研究할 必要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이에 對하야 ……

株式 反戾

低落一巡

今日의市勢(九日)

前場底堅

昨日의 反落場面을 展開後 今朝의 新當株式은 商工業株, 鐵道株 低底로 取引되나 米棉은 多少 反騰되는等 漸次 落步調는 보이지안흐나 昨日의 反落도 多少 安心이되다가 不安感이 不無하야 買方도 追隨의 手를 먹추고 形勢를 觀望하게되어 今朝寄付는 거의 不變이엇스나 一時에 少戾氣味가 되엇든 그러나 곳 積極買進키도 危險하야 賣買薄의 小幅保合으로 前場을 마치엇다

期米 更騰

後場俄然

前場底强

今朝는 晴天 東阪下鞘에 依然 回天으로 阪地寄付 三十二圓六十五錢인 四丁反落을 當하고 當限三十圓二十一錢인 五丁低 中限三十圓丁인 亦五丁低로 先限亦二十九圓九十五錢인 五丁低로 寄合을하야 阪地五十八錢으로 反落하엿스나 不過하고 五節九十四錢까지의 小落을 示現으로 七節九十七錢으로 小返하야 結局 阪止五十七錢을 보고 九十七錢에 止引하다

後場更騰

後場은 二十九圓九十六錢인 一丁高로 寄付後 六錢, 十一錢으로 三十圓丁、〇二錢을 示現하엿다

阪仁縮鞘當然

今年은 朝鮮은 未曾有의 大豐作 日本內地米作은 그다지 樂觀을 許하지못하는 關係도 잇거니와 겨다가 朝鮮米는 船腹의 不足으로 日本內地에의 移出이 不振하야 集散市場의 推積을 告하게되고 阪仁의 鞘가 一時三百丁餘에까지 擴大되엿섯바잇스나 今回 政府米百萬石買上에 朝鮮米도 包含되어 四、五十萬石程度의 買上을 할모양이고 從하야 銀坊主正租 一叺가 日本內地에 移出하야 仁川이 十二錢의 開鞘이든것이 八錢으로 縮少하엿다 此際 朝鮮米의 ……

一回豫想期待

今回 政府米百萬石買上은 朝鮮米도 四、五十萬石程度의 買上을 하게되어 商談이 濃厚하야 朝鮮各地市場은 東京市場보다도 又一層 高騰을 하야 三期共히 三十圓大臺를 突破하엿다 此에는 當分 實需가 堅實하야 …… 그리고 二、三日以內에 發表될 第二回米作豫想이 如何한 數字를 보일지 此의 發表를 期待하는中인데 一般은 實質的으로 豫測하는바에 依하면 朝鮮은 九月二十日以後의 天候가 無難하야 第一回豫想보다 好轉할것이지만 日本內地는 第一回豫想發表後 天候不良하엿스므로 減收를 示하리라는 商談이 多하다 果然 ……

市場六感

(株)……前場에 昨日의 反動落, 昨日은 反戾! ◆이것이 大低落日은 …… ◆이곳에서 執拗한 大衆의 …… 市勢는 保合圈內에 잇슴을 證明? ◆東株減配說도 아직은 單純한說이오 防共協定强化도 …… 大惡材로 解釋할것은 못되는 關係도 戰局의 有利한 進步에 때는 보잘것업는것이라는것이 一般의 認識이나 大衆의 押目買人氣도 無限키는 難할◆强硬한 賣方의 見解는 不一이로되 今明日間에 反高를 보이다면 市勢는 保合圈未脫을 證明하는것이니 追擊賣는 警戒할일(金剛城)

(米)……今回買上에도 朝鮮米도 包含되어 四、五十萬石이나 買上되고기된다고 朝鮮米의 昂騰도 當然하거니와 阪仁의 縮鞘도 도한 當然 ◆三十圓大臺를 突破한 當限先限이 今朝 三十圓臺를 反割破하엿스나 滑落할勢는 少할도 보이지안는다 ◆端境期라 元來 閑散한 時라는것이지만 人氣는 依然히 强硬◆第二回發表의 第二回豫想은 …… 日本內地는 減收 朝鮮은 增收라고하나 一般豫想의 正反對의 現象을 招來할지 누가알랴? (露山)

今日財界(九日)

◆米 (單位錢)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叺一斤(三等)	[illegible]	[illegible]
공장群戶現	—	—

◆株 (單位十錢)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東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大阪三品綿絲	[illegible]	[illegible]
綿花	—	—
人絹	—	—
砂糖	[illegible]	[illegible]

釜山沸騰

產地는 相當한 實需를 待하엿스나 依然 實需不振 …… 外의 僅少를 示하엿고 때마침 朝鮮米買上期待에 依한 商談이 作用하야 市價四十錢高로 沸騰을 告하엿다 ◎三等[illegible] 四等[illegible] 一等白米[illegible]

大邱弄騰

朝米 定期는 後場化로 出廻減少되어 市價二十錢高로 奔騰을 演하엿는데 取引은 常用小口의 必需實需 …… ◎三等三一、〇〇 四等[illegible] 一等白米[illegible]

群山少高

出廻는 十四輛이엇스나 買付物이 만코 新規買物이 적고 …… 日本內地側의 實注旺盛으로 市價十錢高로 商談이엇다 依然 船腹不足으로 ◎三等[illegible] 四等[illegible] 一等白米[illegible]

木浦保合

依然 日本內地의 實需가 旺盛하나 船便關係로 移出되어 取扱의 人氣는 不振의 閑散이다 ◎三等[illegible] 四等[illegible] 一等白米[illegible]

正米 保合이나 堅强

京城不變

定期保合에 따라 前日同樣으로 不變唱이엇스나 小口取引뿐인 閑散場面이다 ◎三等[illegible] 四等[illegible] 一等白米[illegible]

仁川保合

朝鮮米買上決定 公定米價接近으로 各地期米는 以上의 高價는 一般으로 警戒氣分이 濃厚하야 東地도 高價存續이나 多少賣物이 散見되며 移出側도 買入注의 採算이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海外經濟(八日)

[illegible]

銀行券(八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實物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鎭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九日)

◆白米 ◆麥粉 ◆肥料 ◆紙物 ◆燃料 ◆京城燃料 ◆海産物 ◆染料 ◆木材 ◆牛皮 ◆本綿 ◆人絹 [illegible]

期米 盈 康益夏 仁川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